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
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10-1-2001

소그룹활동을 통한 교회성장전략: 광천교회를 중심으로

Jeong Hee Yoo 유정희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유정희, "소그룹활동을 통한 교회성장전략: 광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OF CHURCH GROWTH THROUGH SMALL GROUP: WITH A SPECIAL REFERENCE TO KWANG CHUN CHURCH

written by

JEONG HEE YOO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o Shick Pai

Jung S. Rhee

October 1, 2001

**A STRATEGY OF CHURCH GROWTH THROUGH
SMALL GROUP: WITH A SPECIAL REFERENCE
TO KWANG CHU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EONG HEE YOO

OCTOBER 2001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
- 광천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배효식 교수

유 정 희

2001년 10월

Abstract
A Strategy of Church Growth through Small Group:
With a Special Reference to Kwang Chun Church
Jeong Hee Yoo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 feel that Korean ministry lacks growth in spirituality compared to its rapid growth in number in such a short period. To re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have church growth with balanced spiritual maturity through small group Bible studies and active involvement within the church. This thesis gives emphasis on the need of small group activities to have continuous and solid growth of church. With this premise, I first inquire into the foundation, meaning and bait (special quality) of small group activities. In other words, I studied the function of mutual supplementation between members. I present the model of small group activity, which was formed by Christ with the twelve disciples based on the biblical truth. I also studied the basic system of small group activity and the core elements including fundamental principles. I found out that small group should center around Bible education, worship service, mission, communal fellowship, and serving others.

Secondly, I gave an account of church growth through small group activity. I wrote about the functions and mission statement of church to have numeric and qualitative growth through small group activity. I pointed out the factors that header the growth and present the roles of small group members as members of a body. I gave an emphasis on the role that small group members have to contact directly with the world as divided members of a body in Christ. I also emphasized that small group has a role to evangelize and serve others as an outpost of a church and that small group is the structure to have balanced and healthy growth.

Thirdly, in order to form a small group, there must be at least two people and the presence of Holy Spirit. Also, there needs to be a thorough consideration of age, occupation, and residence for a better and effective development of small group. If a church wants to start a small group, the minister needs to understand the activity of small group and participate in it. When a minister participates first, the church can form and scale up the elective small group. There are many forms

in organizing a small group, but its form always needs to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the military organizations and often lacks the binding power. I studied the role, responsibility, and qualification of small group leader. As an assistant shepherd, the leader has to think about the future, take the initiative, and challenge the members. It requires enormous training and guidance of Holy Spirit to have one leader.

Fourthly, I studied the management of small group activity. In management of small group, the best way to develop a strong group is to have fellowship within the group, evangelize, and tend the new people. That way, members' faith can grow mature and as a result help the growth of church. There are many ways of evangelism in small group, including one-to-one method and group evangelism. For evangelical task, there are various evangelical methods and disciples training to be accompanied. A leader may need assistance from professional evangelist or from evangelism organizations. One-to-one evangelical methods in small group include Evangelism Explosion, 4 Spiritual Laws, and other pamphlets and booklets for evangelism. When small group evangelizes, there can be various kinds of meeting to preach the gospel. I studied and presented the process of grafting that allows the new believers to be members of a church after they are secured with the methods above and go through courses for the new comers.

Lastly, I studied how the small group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in the church in reality. Small group members utilize their spiritual gifts to supplement each other, and together they serve the people in needs, finding opportunities to preach the gospel in season or out of season. As an outpost of a church, small group members can arrange various kinds of meeting, centering their residence and jobs to deliver the gospel. Or they can select a certain area for their team.

In conclusion, small group activities are places for fellowship and sharing with small number of people. There are dynamic meetings where members can have close relationship and help each other developing their potential gifts and ability. They are the leading men of the church who spread the gospel outside the church and vitalize within it. Through these activities of small group, not only the members grow mature but also the entire church grow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ological mentors: Hyo Shick Pai, Ph. D.

Jung S. Rhee, Ph. D.

감사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능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종으로 불러주시고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통찰력을 주셔서 어려웠던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 어려워할 때 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격려해 주신 배효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미숙한 원고를 정리하여 주시고 한 편의 논문으로 엮어지도록 도와주신 이광길 목사님과 사랑하는 사위 이경 집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2001년 10월

유정희 드림

목 차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의 방법	2
제 1 장 소그룹 활동에 대한 이해	4
제 1 절 소그룹 활동의 근거	4
1. 소그룹 활동의 의의와 특성	4
2. 소그룹의 기능	6
3. 소그룹 활동의 성경적 근거	9
제 2 절 소그룹 활동의 기본체계와 실천적 원칙	13
1. 소그룹 활동의 기본체계	14
2.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동의 실제 원리	15
제 3 절 교회 소그룹 활동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	20
1. 성경교육	21
2. 예배	22
3. 공동체내의 교제	23
4. 공동체로서의 선교	24
5. 봉사	24
제 4 절 요약 및 결론	25
제 2 장 소그룹 활동이 지향하는 교회성장의 이해	27
제 1 절 교회의 일반적 개념	27
1. 교회의 정의	27
2. 교회의 기능	28
3. 교회 기능회복을 위한 교회의 사명	29
제 2 절 교회성장의 의의와 제반문제	32

1. 교회성장의 의미	32
2. 교회성장의 요소	34
3. 교회성장의 장애요인들	36
4. 교회성장을 위한 지체들의 역할	40
제 3 절 요약 및 결론	43
제 3 장 교회 소그룹의 구성과 전략	44
제 1 절 소그룹의 형성방법과 원리	44
1. 소그룹의 형성방법	44
2. 교회 소그룹 형성원리	45
제 2 절 소그룹 기능과 형태	52
1. 소그룹의 기능	52
2. 소그룹의 형태	52
제 3 절 리더의 임무와 선발	58
1. 리더의 임무	58
2. 리더의 선발	60
3. 리더의 훈련	61
제 4 절 요약 및 결론	61
제 4 장 교회 소그룹 활동의 운영	63
제 1 절 거둬들이기	63
1. 전도의 필요성	63
2. 전도의 원리와 자세	65
3. 전도의 유형	66
4. 전도의 도구	67
제 2 절 복돋우어 주기	70
1. 양육의 필요성	70
2. 양육의 원리와 이론	71
3. 양육의 과정	73
4. 양육의 방법	78

5. 교회의 지체화 (접붙이기) -----	81
제 3 절 요약 및 결론 -----	82
제 5 장 소그룹 활동의 프로그램과 사례들 -----	84
제 1 절 소그룹 전도 -----	84
1. 제 1 차 집단 초청 전도 -----	84
2. 제 2 차 집단초청 전도 방법 -----	85
제 2 절 소그룹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 -----	86
1. 모임준비 -----	87
2. 대상자 (지) 선정방법 -----	88
3. 시 행 -----	88
4. 모임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일 -----	88
5. 후속조치 -----	89
제 3 절 소그룹을 통한 교회의 활성화 (광천교회 중심) -----	90
1. 광천교회의 역사 -----	90
2. 광천교회의 새생명 훈련 (New Life Training Center) -----	91
제 4 절 요약 및 결론 -----	96
결 론 -----	98
참고문헌 -----	103
VITA -----	107

표·그림 목차

<표 3-1>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선택 기준-----	46
<표 4-1> 양육과정 제안-----	76
<표 5-1> NLTC의 시간표 모델-----	94
<표 5-2> 새생명 훈련의 단계들-----	95
<그림 3-1>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제 2 그룹-----	53
<그림 3-2>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머리그룹과 10 개의 그룹-----	54
<그림 3-3>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3 개의 머리그룹-----	54
<그림 3-4>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7명 그룹-----	55
<그림 3-5>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12명 그룹-----	56
<그림 3-6> 세포분열식-----	56
<그림 3-7> 7인 순구조-----	56
<그림 3-8> 네트워킹형 구조-----	57
<그림 4-1> 성장을 위한 최적 훈련과정-----	77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동안에 양적으로는 급성장한 반면 영적 또는 인격적 부분에서는 양적 부분의 성장에 비해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격적 부분에서의 성장 지체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연길, 최훈진이 갈파한 것처럼 그 원인은 부흥회와 기도원 중심의 교회운동이 기독교신앙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단순한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한 데 있다고 본다.¹⁾ 이렇게 한국교회가 초기성장 단계에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성장속도 차이에 의해 신앙과 생활의 괴리, 기복적 신앙과 물량주의, 교회간의 극심한 빈부차 등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1980 년대와 1990 년대를 걸쳐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부흥 사경회로 전환하고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성경공부와 소그룹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즉, 한국교회가 성장기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²⁾ 그 결과 1980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경공부와 소그룹 운동이 한국교회의 영적 또는 인격적 성숙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한국교회의 균형적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그룹을 통한 성경공부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성숙에 더욱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즉 체계적인 정립을 통해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1980 년대부터 진행된 초기 소그룹 운동과 말씀중심의 성경공부 운동은 기존의 목회자 중심의 교회구조와 관습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성과가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소그룹 활동과 성경공부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됨으로써 한국교회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인은 새생명 훈련원이 있는 한국 대학생선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해 오면서 대학생

1) 이연길, 최훈진,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 이상규, 한국교회의 역사적 흐름 (서울: 총회출판국, 1998), 18 에서 이상규는 현대 한국교회 성장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선교에 헌신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의 일부인 소그룹 활동을 지역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세상
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이다.
본인도 이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 주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21 세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회성장 흐름
을 계승하면서 보다 더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교회성장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새
로운 교회성장 패러다임은 첫째,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 한국교회의 상황에 적합하
여야 하고, 둘째,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셋째,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정립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보사회의 기반구조를 활용하여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소그룹 활
동을 통한 교회 성장 흐름을 중심으로 성경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한국교회의 상황에 적합
한 교회성장 패러다임 형태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목회자 중심의 한국교회 내에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교회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을 연구·제시함으로써 이전
세대가 이룩하여 물려준 한국교회를 더욱 성숙하고 영향력있는 교회로 만들어 갈 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성장 패러다임을 정립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소그룹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실천적 결과에 대한 기록물 자료가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성경과 신학이론적 기초, 교회 성장관련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아울
러 본인의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활동한 소그룹 활동 경험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교
회성장을 이룬 교회 담당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방법 등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1 장에서는 실증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문헌 연구로서 소그룹
활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 2 장에서는 소그룹 활동과 교회성장의 관계를, 제 3 장에서
는 소그룹 구성과 전략을, 제 4 장에서는 소그룹 활동의 운영을, 그리고 제 5 장에서는 연구

한 이론을 바탕으로 광천교회의 소그룹 활동을 평가하고 교회성장을 위한 사역의 방법으로
서의 소그룹 활동사역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소그룹 활동에 대한 이해

제 1 절 소그룹 활동의 근거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동안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그룹에 속하여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런 그룹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에는 학문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것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소그룹 중에서 기독교 소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소그룹의 의의와 성경적 근거,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세워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1. 소그룹 활동의 의의와 특성

가. 소그룹의 의의

일반적으로 소그룹이란 두 사람 이상이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임을 의미한다.³⁾ 이에 대해 기독교 관점에서 맥브라이드는 교회 내에서 3-12 명까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세워 주고 교제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을 소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맥브라이드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제자그룹 중심으로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 명으로 구성되는 집단은 소그룹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소그룹 구성원의 규모에 리더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의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조직도 일반조직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교회내의 소그룹은 일대일 제자 양육팀과 같이 리더를 포함해서 2

3) David W. Johnson and Frank P. Johnson,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2). 25.

4)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99), 28.

명이상으로 구성되는 집합체로 정의하여야 상황에 적합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다만 교회의 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동측면으로 볼 때 소그룹의 규모는 리더를 제외하고 6 - 12 명 정도의 구성원이 효과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는 소그룹 규모가 6 명 미만인 경우에 그룹을 형성하여 모임을 시작하기는 수월한 반면, 소수인 관계로 교회내에서 지나치게 많은 소그룹으로 세분화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그룹의 재생산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그룹은 구성원의 규모와 구성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으나, 교회성장과 관련하여 소그룹에 대한 정의를 “리더를 제외하고 6-12 명 정도의 구성원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집합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소그룹의 특성

나뭇가지가 홀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서 다른 가지와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소그룹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의지하고 상호작용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나감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이 상호의존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어떤 공유된 확실한 목적 아래 자기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립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힘을 가진 집합체인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소그룹의 특성으로는 상호 보완성 (Mutuality)이다. 소그룹 안에서는 서로가 개방적이고 상호 보완적이어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정한 규범아래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 주는 개체들의 모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소그룹은 딱딱하지 않으며 용납하는 분위기를 지니기 때문에 즐거움과 쉼을 누리고 함께 유익을 공유하며 평생 지속되는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된다.⁵⁾ 이렇게 소그룹은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 특성은 융통성 (Flexibility)이다. 모임의 순서나 과정, 프로그램 등을 쉽게 변경하여 구성원들의 필요와 그룹의 주변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소그룹은 장소의 제한도 매우 적게 받는다.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모일 수도 있다. 사도행전 2 장에서 3,0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여러 집에 흩어져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소그룹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은 역동성 (Dynamics)이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능력과 은사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지혜나 방법을 개발하고 각기

5)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9.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모아서 소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수 있는 역동적인 모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모여서 서로를 알아 가고 힘을 모으며 돕게 될 때 놀라운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이 가진 능력과 노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상승효과 (Synergy Effect)가 소그룹 모임에서 발생하게 되는 데, 그 이유는 구성원 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다중의 복합적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특성은 유기체적 통합성 (Organic Unification)이다. 소그룹은 많은 수의 구성원보다는 적은 수의 구성원이 모이므로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상대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룹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는 대화와 배움의 장이 되고 상호 보완작용이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적 관계를 갖게 된다. 소그룹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로서,⁶⁾ 그룹구성원 개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소그룹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지체(肢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 두 구성원의 결손은 소그룹의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며 소그룹은 체계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2. 소그룹의 기능

소그룹은 위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복음전도와 변화의 핵심체가 되며, 개인적인 훈련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성장의 활력소가 되기까지 그 기능과 역할은 다양하다. 이러한 소그룹의 핵심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가. 복음전도의 매개체

원동력이 되는 교회는 지역주변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은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과 접촉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 소그룹에 속한 구성원의 신앙성장과 생동감 넘치는 생활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 되며 교회의 양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6)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91), 14.

나. 변화의 핵

단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⁷⁾ 많은 사람이 소그룹에 참여함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거나 발휘하고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과 같이 활동력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론 니콜라스는 소그룹이 변화의 핵으로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⁸⁾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약 12 명쯤 한 그룹이 되어서 모이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소그룹에 있던 각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또 다른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모험을 감행하면서 교회를 바꿔 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 교인의 반 정도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번은 일 년이 넘도록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소그룹 활동은 특별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 소그룹 활동은 전문적인 지도자가 없을 경우에도 여전히 성장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소그룹이 교회 전체에 변화의 핵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다. 자기 훈련과 공동체생활 훈련의 장

소그룹 활동은 많은 사람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공동 관심사와 목표를 갖고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를 위하면서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성숙은 물론이고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며 전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사회성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소그룹 구성원간에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공동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은 어려움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인격적 성숙을 기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제공한다.

소그룹 활동은 참가자 전원이 활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사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은 군중 속에 숨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자신이 그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그룹 활동은 각 개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고 자

7) Nea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9.

8) Ron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24.

주적이고 주체적이며 협동적인 인격을 형성해 가는데 밑받침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대부분도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제자훈련과 현장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배우며 참여하여서 위대한 증인들로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입고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그룹 활동은 평범한 소수의 사람들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지도록 열린 마당의 모임을 통하여 자아발견과 협력을 유도해 내고 공통적으로 어떤 응집력을 창출하면서 교회 전체 속에서 누룩과 핵이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라. 교회성장의 원동력

소그룹 운동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실천하시고 또 그 본을 보여주신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성장·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건물의 웅장함과 거대함, 교인수의 증가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일 수는 없다. 오히려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구체적인 양육을 받아 은혜와 진리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하는 소그룹 공동체로 연합되어 각 기관과 부서와 모임 속에 연합되어야 진정한 교회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이 의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교인 개개인이 함께 거하며 지식을 얻어 가며⁹⁾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공유하면서 역동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그룹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3명과 12명의 제자 소그룹을 통해 공생애 사역을 이루어 가신 점(눅 6:13-16; 마 4:18-22)과 초대교회가 가정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통한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체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였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이런 점에서 소그룹은 특이한 유기체 조직이어서 회원들의 덕과 은사를 공동으로 나누고 허물과 고통과 외로움과 죄와 불신을 서로 나누어 청산해 버리는 영적 가정의 역할을 한다. 소그룹은 형식을 배제하면서도 자연 발생적이고 생명력 있는 변화의 핵과 훈련을 통해 개인이 변화되는 현장이 되어서, 이곳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각종 기관이나 공식적인 모임 또는 위원회에서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그룹 활동은 성경을 공부하고 삶

9)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40.

1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94), 23.

을 나누며 서로 협력하여 전체 교회를 세워 가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그룹 활동의 성경적 근거

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1) 창조시의 소그룹 - 가정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약 대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교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소수의 무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이라는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서로 함께 그룹을 이루어 함께 교제하며 지내도록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창 2:18).¹¹⁾

(2) 출애굽이후 광야시대의 소그룹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이후로 민족이 형성되면서, 그 규모와 크기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그룹으로 분류되고 다양한 집단을 형성하였다. 크게는 민족단위에서 작게는 가족단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민족단위 그룹 (신 7:6-8; 출 40:38)이나, ‘지파’라든지 ‘가족 또는 집’ 단위 (창 50:8)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형태나 그룹의 크기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 하실 때 반드시 그룹단위의 모임 속에서 역사 하심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덟 명으로 이루어진 노아의 가족을 사용하셨으며 또 그 언약을 바로 이 가족을 통해서 맺으셨던 것이다 (창 6:18-19). 룻기의 사례도 역시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세 명의 여인들과 한 남자에 관한 소그룹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그룹과 공동체에 어울리는 존재로 창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그 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소그룹 단위로 구성된 새 민족을

11)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23.

12) Ibid.

13)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23.

이루게 하셨다. 출애굽기 18 장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명, 오십 명, 백 명 그리고 천 명 단위로 나누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똑같은 소그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민 12-13 장; 스 4:15; 느 3 장; 단 1:3-7). 또한 룯의 시대에도 가족을 통하여 이방인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가족 그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있었다.

(3) 유대인의 회당문화 속에 나타난 소그룹

바벨론 포로시대부터 유대인은 10 여 명의 남자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회당을 세웠다.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의 생활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¹⁴⁾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권면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는 소그룹의 형태로서 상호 의존적이고 단합된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였다.¹⁵⁾ 유대인들의 강한 유일신 숭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들의 비교적 우수한 도덕률 등은 모든 지도자들의 존경심을 불러 일으켰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유대교에 개종했으므로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개종한 집단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할례를 허락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했으며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사도 행전에는 이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후기의 선교활동을 활발히 했던 사람들도 이들이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합집산과 이주를 거듭하면서도 소그룹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다.

나.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 활동

(1) 그리스도의 소그룹 활동

그리스도의 최초 전도는 개인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마 4:18-20; 21:43)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소그룹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 (마 4:18-22; 눅 6:13-16).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 일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중 일부를 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셨다 (막 3:13-20). 그리스도는 제자들로 구성된 이 소그룹

14) 김명혁 편,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5), 63.

15) Ibid., 63.

에 많은 관심과 사역을 집중하셨으며 이 소그룹을 하나님 나라 전파와 확장에 있어 핵심적인 매개체로 사용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대한 사역과 많은 무리들에 대한 사역을 위해, 정말 작은 규모의 소그룹 사역으로 시작하였던 것이다.¹⁶⁾ 이들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나 소그룹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었으며 후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되었던 것이다.¹⁷⁾

맥브라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 소그룹과 함께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다.¹⁸⁾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그 만큼 소그룹에 집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종순도 예수의 복음전파 사역이 언급된 90 회 중에 60 회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나머지 30 회가 대중 설교였다고 말한다.¹⁹⁾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비록 성경이 직접적으로 소그룹 활동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이나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소그룹 활동의 표상을 보여 주셨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3 년 동안 소그룹 훈련을 통하여 그 구성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에 유능한 지도자들로 세우시는 데 자신의 삶을 쏟아 부으셨던 것이다.²⁰⁾ 그리스도는 소그룹을 통해 집중적인 훈련과 가장 효과적인 사역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늘어감에 따라 그의 공생애 제 2 년 중반에 선택된 무리들을 보다 다루기 쉬운 숫자로 제한하여야 했다. 이에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눅 6:13-17).²¹⁾ 그리스도는 이 작은 수의 무리를 더욱 깊고 가깝게 만나셨으며 이들에게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훗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훈련하였다. 그 외 야고보 (그리스도의 형제)와 마가, 누가 등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지만, 열 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더 많은 훈련을 시켰고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하셨다. 그 열 두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거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이들 3 명만이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상황

16) Nea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18.

17) Ron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21.

18) Nea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18.

19) 박종순, 교회성장과 성경공부 (서울: 해원출판사, 1984), 20.

20)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27.

21) Robert Coleman, 예수님의 제자도, 24.

(막 5:37; 눅 8:51), 변화산상의 그리스도 (막 9:12; 마 17:1), 그리스도의 겿세마네 기도 (막 14:33; 마 26:37)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제자들로서 후에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되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친 사도들이 되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군중을 소홀히 하신 것은 아니다. 그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며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전도를 하신 것을 보면 군중을 절대로 소홀히 하셨다고는 볼 수 없다. 많은 시간을 군중 전도에 할애하였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며 또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면서 하루종일을 지내야 하기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으셨을 정도이셨다 (막 3:20; 6:3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불러 소그룹을 만들어 훈련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그 그룹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2) 초대교회 사도들의 소그룹 활동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복음사역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요 20:21) 성령을 내려 보내심으로써 초대교회 시대로 이어지게 된다.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사도들이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은 이방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교회구성원이 120명 (행 1:15)에서 3,000명 이상 (행 2:41)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후로 교회 구성원들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이 때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더 이상 대그룹 형태로 모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4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효과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두 종류의 모임 곧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들을 교회 공동체로 연합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도들은 대그룹으로서 정기적인 예배와 소그룹 중심의 교제를 통해 교회 전체를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함으로써 전체와 부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소그룹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도행전 제2장을 고찰해 보면 초기 예루살렘교회 소그룹 활동에 네 가지 요소, 즉, 교육, 예배, 봉사, 전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 2:42-47).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다 함께 성전에 자주 모였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와 기도, 섬김과 봉사 등은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 수행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행 2:42-46).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소그룹 활동 사역을 본받아 교인들을 소그룹 중심으로 훈련하고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지상명령 (마 28:18-20)을 계속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3) 바울 사도의 소그룹 활동

초기 예루살렘교회의 사역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지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였다. 회심한 이후 바울 사도는 이방지역에서 가정이나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볼 수 있다 (행 20:20). 각 집에서 모이던 소그룹들은 계속 확장되어 큰 교회를 이루면서 소그룹 중심의 활동은 교회 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사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롬 16:3-5), 빌레몬의 집 (몬 2 절), 유스도의 집 등 많은 소그룹 활동 모임들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사도시대의 교회는 가정교회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패턴을 따라 누룩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던 것이다. 그들은 소그룹 모임을 신앙생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깊은 교제, 봉사와 헌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였던 것이다. 초기 예루살렘교회와 사도시대의 각 교회들은 이같은 소그룹을 기초 단위로 하여 형성되고 성장하였으며, 이 소그룹들이 사회의 각계 각층에 파고들어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제자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소그룹 운동에 대한 전통을 되살려, 양적으로 대형화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해 온 현대 교회들을 소그룹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신약시대의 교회들과 같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소그룹 활동의 기본체계와 실천적 원칙

초대교회의 성장이 소그룹에 근거하였던 훌륭한 전통을 되살려, 현대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그룹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소그룹 활동의 기본 체계와 실천적인 활동 원리를 고찰함으로써 소그룹 활동의 전개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그룹 활동의 기본체계

소그룹의 목표는 소그룹의 존재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목표 설정이다. 소그룹 활동은 단지 소그룹을 형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제자훈련 소그룹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신앙을 굳게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또는 적절한 제자훈련을 통해 새 신자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목회자와 함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 밖에서까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소그룹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양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케리쿠네는 양육을 새신자의 신앙기초를 형성하는 영적 작업으로 보아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²⁾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기에 훈련되고 성숙한 양육자가 필요하며 아울러 양육의 모태가 되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육에 있어서 소그룹은 새신자가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며, 때로는 적절한 보호와 사랑, 또 그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등 영육간의 훌륭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맥브라이드가 말한 것처럼 전도자와 제자로의 성장은 소그룹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할 것이다.²³⁾ 소그룹 내에서는 리더 (a leader)와 구성원들 (followers) 상호간 또는 구성원들 상호간에서로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주는 효과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소그룹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롬 12:10; 15:7; 고전 12:25; 갈 6:2; 엡 4:32; 살전 5:11; 히 10:24; 약 5:16; 벧전 4:10; 요일 4:11).

한편 소그룹 안에서도 리더인 양육자는 언제나 구성원들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함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나누는 부모의 역할이 요구된다. 소그룹의 리더는 훈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월터 헬릭슨은 양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살피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양육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⁴⁾ 김준곤 역시 양육하는 리더를 어머니 내지 작은 목자로 보았다.²⁵⁾

이렇게 훈련되고 성숙한 리더가 초신자의 영적 성장과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안내함으로써 소그룹 활동을 생동감이 넘치는 모임이 되어 간다. 이렇게 소그룹 내의 리더인 양육자는 어머니같이 목자같이 소그룹 구성원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성경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결국 소그룹 활동의 원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질적으로 양육하는 데 리더가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다.

22) Bille Hanks Jr. &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33.

23) Nei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25.

24)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1981), 79.

25) 김준곤, 순론 (서울: 순출판사, 1998), 23.

소그룹 활동의 기본 체계가 갖추어지려면 목표 설정과 리더 결정 이외에 구성원 (followers)의 선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을 소그룹에 참여시켜야 하는가는 소그룹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 양육과 제자훈련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목표에 자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은 신중해야 하므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와 개별적인 인격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의 규모는 후술하는 원리에 따라 일정한 규모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소그룹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안내할 리더가 결정된 후, 그 리더에 의해 설정된 목표에 자원하는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소그룹 활동의 기본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2.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동의 실제 원리

가. 교회 소그룹의 구성원리

(1) 신중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는 각기 직업이나 성품이나 출신 등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리스도 당시에 5,000 명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 다녔지만 그 중에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셨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핵심구조로 하여 항상 같이 잡수시고 가르치시고 주무시면서 훈련시키셨다. 그리스도의 제자 선택은 그 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난 뒤 선택적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이것은 제자 선택에 있어서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신중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자 선택의 결과는 2,000 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²⁶⁾

(2) 소그룹 구성원의 규모

그렇다면 한 소그룹의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 사람이 깊은 교제를 하려면 소그룹의 규모는 적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구성하신 제자그룹의 경우에는 12 명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 내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구성된 핵심 소그룹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열 두 명중에 세 명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다. 열 두 명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세 사람만 데리고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소그룹의 규모에 대해서 맥 브라이

26) Leroy Adams,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부, 1981), 33.

드는 12 명 이상이 되면 상호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목표 성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²⁷⁾ 클라이드 레이드는 소그룹의 성공가능성이란 기준을 통해 8 명에서 12 명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²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상한은 12 명으로 하되, 하한은 소그룹의 의의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6 명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3) 비전과 목표 공유

소그룹의 구성원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직업과 출신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성장을 지향하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때, 같은 마음이 되고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룹 모임을 가질 때마다 리더는 그룹의 비전과 목표를 공개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⁰⁾ 이와 같이 소그룹 활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다.

(4) 구성원의 다양성

소그룹의 구성원 선택에 있어서 또 고려하여야 할 것은 구성원의 다양성이다. 즉,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클라이드 레이드는 “어떤 사람은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늙은이는 늙은이들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남녀노소, 빈부 등 여러 종류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³¹⁾라고 하였다. 리로이 아임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 직업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제자를 삼을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팀 안에서는 학구적이고 조용한 사람들뿐 아니라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다.³²⁾

27) Nei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29.

28)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쿤란출판사, 1996), 44.

29) 여기서 소그룹의 규모는 리더를 제외한 것임.

30) Nei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30.

31)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45.

32) Leroy Adams,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34.

이성간이나 세대간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어서 교제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적응하는 좋은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의 구성원은 다양성을 띠는 것이 좋다 하겠다.

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형성

그리스도의 제자공동체는 소그룹 안에서 인간적·영적 체온을 느끼며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고생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 이처럼 소그룹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소그룹의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안에 있어야 한다. 소그룹 구성 초기에 구성원들을 서로 단결시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사랑이나 친근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다.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구성원 각 사람안에 역사 하는 한 성령에 기초한 것이다 (롬 6 장).

둘째, 소그룹 안에서는 구성원간에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용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대화와 상호 이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 이해와 열린 대화를 위해서 똑같은 성경을 쓸 수도 있으며 지나치게 열정적인 찬송을 금지할 때도 있어야 한다. 줄을 많이 그어 놓은 낡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나 지나친 신앙행위는 초신자의 마음을 오히려 닫히게 하거나 대화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그룹내 상호 작용에 있어서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그룹 안에서는 서로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섬기게 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그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위한 헌신적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소그룹 안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³³⁾ 그룹이 하나로 단결하고 뭉치는 일에는 철저한 섬김의 희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서로 세워 주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한다.³⁴⁾ 누구나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신앙에 많은 문제를 안고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소그룹 구성원 상호간에 삶의 나눔 (life-sharing)이 없다면 구성원의 구체적인

33) Bob & Betty Jacks, 소그룹을 통한 효과적 전도, 네비게이트 역 (서울: 네비게이트출판사, 1999), 42.

34) Neil F. McBride, 소그룹인도법, 30.

상황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소그룹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깊이 알아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룹 안에서 서로가 다른 영적·일반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남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워 주고 자신도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호 보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소그룹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필요를 채우면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³⁵⁾ 소그룹 활동은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서로 나눠 지며 채워 주는 활동이다. 소그룹의 상호작용은 서로를 위하여 수고의 짐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므로 그룹 안에서 각 개인이 주께 하듯 서로의 필요를 섬기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그룹에서는 모임 때마다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를 돕도록 한다. 특히 그룹 내에서 개인 기도제목을 교환하며 짝기도나 합심 기도를 통해 응답될 때 그룹 원 상호간에 사랑이 더욱 깊어 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임 때 구체적인 개인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의 표시가 될 뿐 아니라 그 모임을 더욱 열린 모임이 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상호간의 기도는 친밀감과 신뢰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요 17:11-26). 이렇게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최상의 방법은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만큼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되게 하는 놀라운 교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룹 내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의 생활과 전도에도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행 4:24-31). 소그룹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것을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공동체의 역동성 (Group Dynamics)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³⁶⁾ 따라서 기도는 소그룹의 상호작용가운데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단결 활동인 것이다.

요컨대,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성격이나 연령 그리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삶을 공유하여 서로의 필요를 섬기고 기도로 연합함으로써 한 공동체가 되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성취의 기초가 다져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35)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셉 역 (서울: 콤파스출판사, 1996), 37.

36) 이연길, 최훈진,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방법, 21.

상처를 고쳐 주고 고침을 받으며 용서 받고 용서해 주며 융화되고 융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무수한 소그룹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하며 예수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³⁷⁾

다. 소그룹의 기본활동 - 경건 훈련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경건 훈련은 필수적이다. 경건 훈련은 구성원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완전해 지도록 인도한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 소그룹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소그룹들과 본질적인 다른 것은 바로 경건 훈련에 있다. 소그룹 활동에는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안내하는 환경과 경건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경건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먼저,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신의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즉,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죄인의 모습과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이 때 소그룹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 자기 삶을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성실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³⁸⁾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개인적으로 구성원을 만나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다른 지체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즉, 그룹구성원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를 안내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지위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며, 자기의 삶의 목적이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살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확실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삶의 관심이 자기를 넘어서 다른 이에게로 가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자신에 적합한 은사와 재능을 받아

37)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46.

38) Bille Hanks Jr. &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180.

그 분야를 개발하여 소그룹과 교회를 섬기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은사와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서 자기 존재의 의의와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또 그것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임무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성개발, 대인관계, 비전과 목표 정립, 은사개발 등을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세워 가도록 돕는 것이 소그룹에서 진행되는 경건 훈련인 것이다.

제 3 절 교회 소그룹 활동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

소그룹 활동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훌륭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그룹은 어떤 활동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일까? 소그룹 활동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행 2:42-47)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소그룹 활동에서 교회성장에 필요한 소그룹 활동의 특징들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³⁹⁾ 초대교회의 소그룹 활동의 특징들은 성경교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공동체적 선교와 봉사 이다. 즉,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네 가지 핵심 내용, 즉 성경교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공동체적 선교와 봉사에 힘썼던 것이다.⁴⁰⁾

1. 성경교육

초신자를 얻어 그룹회원으로 받아들인 다음,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 누구에게든지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나침반과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도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배우게 하였다 (행 2:42).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우면서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여 굳게

39) 사도행전 2 장 42-47 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0)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6), 26-27.

세워져 갔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에 따른 삶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자의적인 교훈은 아니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소그룹의 목적과 그들의 영적 성숙도와 필요에 맞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구성원들이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독교 서적이거나 영화, 카세트 테이프, 강의, 간증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직접 공부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에서는 직접적인 성경 공부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소그룹 안에서 효과적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방법이 쉬우면서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의나 설명보다는 구성원들의 깊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들만의 생각이나 주관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성경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 감으로써, 함께 나누고 거기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어떤 교훈이나 책망, 바르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배움은 상호간의 전인격적인 관계이며 공동체적이고 가족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⁴¹⁾ 이렇게 볼 때 소그룹 안에서의 말씀 훈련은 준비된 교재를 통해 미리 연구하여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만들어 주며, 준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거나 함께 나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구성원들은 소그룹의 모임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발견하였거나 깨달은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소그룹 성경 공부는 대화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⁴²⁾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대화식으로 함께 성경공부 하려면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서먹서먹해서는 안되며 서로가 부담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마음을 열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단생활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나 잘 어울리고 잘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공평한 발표의 기회를 갖게 한다든지 너무 길거나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가급적 해야 할 일은 좋은 대화의 분위기로 토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취미, 건강, 날씨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1)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321.

42) 이연길, 이야기식 성경공부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56.

셋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경계하여야 한다. 성경 공부 모임 속에서 혼자 독주하거나 모든 대화에 간섭하거나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이 적은 수줍은 사람을 배려하여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잘 지키고 모임을 갖고 있는 방 분위기를 잘 살피서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을 미리 알려 주고 각자 집에서 준비하여 오도록 한다. 또한 지나친 교과나 당과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등은 좋은 의미에서도 삼가야 하며 반드시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으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구성원들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해석 및 적용의 방법을 배워 가게 될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소그룹 안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성경공부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리더는 구성원의 신앙 성장을 고려하면서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 가야 할 것이다. 이는 성경공부가 구성원들에게는 내적인 신앙 성장의 자양분이 되며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태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 즉 예배는 소그룹 공동체의 두 번째 핵심 요소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다.⁴³⁾ 예배는 꼭 일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그 가운데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도 다 예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삶에 확신을 주거나 죄를 깨닫거나 헌신과 결단을 하거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세례를 받는 등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간에 가장 종합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의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 사회나 가정으로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도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전체 교회의 예배에 변화를 주고 뜨겁게 불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훈련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열정적인 기도 활동이 일어나며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인의 삶이 유

43)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28

발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낡고 형식에만 집착하는 예배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새 힘을 얻게 하는 소그룹 예배야말로 교회성장과 구성원의 신앙성장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3. 공동체적 교제

소그룹 활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룹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다. 교제는 서로를 알아가고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교회는 코이노니아 (koinonia), 즉 교제에 전념하였다. (행 2:42-45). 이 사실은 소그룹에서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 준다. 다만 소그룹에서의 교제는 단순한 대화 (communication)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나누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약 5:16), 서로의 짐을 져주고,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피차 격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전인격적인 사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코이노니아는 단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성만찬이 과연 소그룹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스노글은 두 세 사람 이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주의 만찬을 소그룹으로 기념하도록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소그룹에서 정기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본다 (눅 22:14-23). 또한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상호의 힘을 결집할 수 있어서 소그룹 공동체의 연합에 매우 효과적이다. 교회나 소그룹 안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았음을 함께 고백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없는가를 서로 돌아보아 상호간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히 10:24-25). 사람의 몸의 뼈마디가 서로 힘줄과 핏줄, 피부로 연결되어 있듯이, 소그룹 구성원들이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함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4. 공동체적 선교

지금까지는 소그룹 내의 구성원 상호간의 내부적 활동을 살펴보았으나, 이제는 외부적인 활동을 살펴 보려고 한다. 소그룹내에 내부지향적인 많은 훈련이 있을지라도 외부 지향적

44)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324.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소그룹 내에 많은 불만과 비판과 부정적 사고를 낳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교회 소그룹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널리 전파하여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서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소그룹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생명력 있는 소그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룹의 능력과 힘이 확장되어서 외부로 발산하게 된다. 그 발산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전도활동이나 사역, 선교와 구제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의 개념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함께 돌아보며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돌보는 일과 같은 소그룹의 구성원을 해외선교를 위하여 파송하고 기도와 재정으로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한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었으며,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던 것이다 (행 2:43-47).⁴⁵⁾

5. 봉사

소그룹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 활동은 재정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노동력의 지원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함께 날짜를 정하고 시간과 물질을 모아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또는 병원을 방문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입원 환자들이나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즐거운 한 시간 즉, 찬양과 오락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소그룹 활동 중에 사회봉사 활동에 관하여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어떤 봉사활동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여 주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복음증거와 기도가 결여된 봉사는 목표를 상실한 자선행위에 불과하게 되며 구성원들의 신앙 성장에도 비효과적인 공허한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소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됨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봉사 활동인 것이다.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이상은 소그룹 활동의 역사와 필요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소그룹은 대

45)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32

단위 사회나 교회 안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처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신앙 인격을 훈련하는 도장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리와 참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뜻대로 삼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부적으로는 상호 협력하고 연합하며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 활동은 성경 교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그리고 공동체적 선교와 봉사 등을 통해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교회의 지체간에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제를 통해 목표와 삶을 공유하므로 동질감을 갖게 하며, 전체 교회에 역동성을 불어 넣어 교회의 양적·질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 전체적인 활동과 교육에만 의존하는 교회보다 그것과 함께 소그룹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 교육도 설교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용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 단위의 대화와 일체감을 갖게 하는 만남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그 수용가능성이 많고 개인적인 적용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새신자들이 쉽게 교회에 적응하게 되고 성도 개개인이 소그룹에 속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개인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게 될 것이다. 이로써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외부적으로 선교와 봉사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제 2 장

소그룹 활동이 지향하는 교회성장의 이해

제 1 절 교회의 일반적 개념

교회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역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와 이에 대한 신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소그룹 활동의 방향과 그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1. 교회의 정의 (Definition of the Church)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그분을 예배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본다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교회는 세계 인류 중에서 특별히 지명되어서 불러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롬 1:1; 벧전 2:9), 그럴 때 하나님의 도성이나 왕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견해를 달리한다.⁴⁶⁾ 그러나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창조이후로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그리고 종말이후의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불가변적인 영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 끝날 까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의 외형적 집합체라기보다는 성도의 교통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러지는 공동체이다. 즉,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실체로서 지상의 사회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유기적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진다. 비록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두 중

46) Peter Wagner,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요한 역 (인천: 성경연구사, 1986), 30.

류의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주재권속에 있으므로 교회는 점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2. 교회의 기능 (Functions of the Church)

소그룹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그 교회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획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는 것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각각 사명을 부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 장에서 교회를 언급하시고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말씀하시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일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직무를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 봉사⁴⁷⁾와 복음 전파⁴⁸⁾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임과 은사를 정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이 각각 몸의 지체를 이루어 각자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며 상호 보완 작용을 하여 복음 전도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다. 교회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골 2:19). 이와 같이 교회는 지상에서 모든 사람을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권한을 위탁 받았다.⁴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 방법은 선교이며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여기서 부름을 받은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유기체라는 점과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지체로서 받은 은사를 따라 선교하는데 골고루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각기 다른 직책과 은사들로 통일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은 각기 다른 은사와 은혜가 주어졌으며 (엡 4:7)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각기 분량대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로 섬기게 된다 (엡 4:11-12).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개인이나 직임은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의미를 상실하며 오직 각 지체들이 온몸에 연

47)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323.

48) Peter Wagner,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인천: 임마누엘, 1992), 54.

49)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323.

50)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6), 62.

결되어 있을 때에만 지체로서의 의미와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다 (고전 12:12-31). 이는 몸에 연결된 지체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연합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유기체적 통일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부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3. 교회의 기능회복을 위한 교회의 사명 (Directions to Recover the Functions of the Church)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서 사람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며 전도하고 봉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찰스 벤 엔젠은 세상 안에서 교회의 존재이유를 1)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하라”), 2) 케리그마 (“예수님은 주시다”), 3) 디아코니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4) 말투리아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네 가지 성경의 용어를 통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⁵¹⁾ 이 네 가지는 마땅히 현대교회도 역시 교회의 근간으로 삼아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찰스 벤엔젠의 네 가지 교회 존재이유를 통해 현대 한국교회의 본질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사랑, 진리, 봉사와 구제, 선교라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적극적 사랑의 실천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요 13:34-35; 막 12:29-31). 따라서 현대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기초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교회의 폐쇄적인 문을 열고 그 높은 문턱을 낮추며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도록 훈련하는 것과 교회가 관할

51)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18-119. 코이노니아 (요 13:34-35; 롬 13:8; 벧전 1:22), 케리그마 (롬 10:9; 고전 12:3), 디아코니아 (마 25:30, 45), 말투리아 (사 43:10, 12; 44:8; 행 1:8; 고후 5:20).

하는 지역 및 선교지를 위하여 교회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롬 5:8; 요일 4:8-10).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신 사랑, 성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보여주신 사랑, 성령의 연합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지체와 지역, 그리고 다른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⁵²⁾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고안하거나 창조해 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참사랑인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의 제자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 지역과 선교지를 사랑하여 섬기고 봉사하게 될 때, 성령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요 그 교회는 더욱 성장·발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⁵³⁾

나. 올바른 진리 선포와 양육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받아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한다. 이는 사랑과 섬김으로 바탕을 튼튼히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과 지체들을 양육하고 훈련한 뒤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내어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뒤에 보내셨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훈련함으로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기간 중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양육하시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는 훈련하신 그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육 받고 훈련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증거 사역을 하게 하셨다. 오늘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적극적인 복음증거 사역에 앞서 성령 안에서 성경으로 양육 받고 삶을 훈련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2)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

53) Ibid, 121.

다. 구제와 봉사범위의 확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된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웃과 지역과 다른 민족들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봉사하고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봉사와 구제의 태도는 언제나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공생애 기간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비천한 자와 소외당한 자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섬김의 생애를 살아 가면서 때로는 종으로 어떤 때는 치료자와 동료와 위로자로서 살아 가셨다. 겉으로 치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겸손히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봉사와 구제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이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더욱 더 겸손히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과연 현대교회는 이 사회에서 그늘진 곳을 헤매며 냉대와 가난과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가? 교회의 이웃은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이며 교회는 이들에 대하여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펼쳐야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대 교회 역시 오순절이후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병든 자들과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적과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섬김과 봉사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을 때 집사 (deacon)라는 새로운 구제사역 형태를 통해 계속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나간 것을 알 수 있다.⁵⁴⁾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 하심으로써 교회의 섬김과 봉사임무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라. 복음전도와 선교

올바른 교회는 공동체 내부만의 영적 축제나 예배, 봉사 등과 같은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올바른 교회는 선교를 지상목표로 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목적 중에 선교는 교회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신진대사는 더욱 활발해져 강력한 응집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교를 목표로 삼고 실천하는 교회는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도 큰 믿음의 담력과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교회공동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강한 영향력을 지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54)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9.

할 것이다.⁵⁵⁾

제 2 절 교회 성장의 의의와 제반문제

본 절에서는 진정한 교회 성장의 의의와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들과 장애요인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신자들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교회 성장의 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다면 모든 면에서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 양적으로는 증가되어야 하고 질적으로는 더욱 순전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 13:1-33). 성경의 전체 맥락도 교회의 성장을 전제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복음전파의 결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들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인도하며 능력 있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과 진리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 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데, 현재까지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일관된 정설이 없이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본인은 대체적으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종합하는 차원으로 교회의 성장을 보고자 한다.

가. 질적 성장으로 보는 견해

교회 성장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찾으시고 부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많아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 성장을 교회성장으로 보는 견해이다.⁵⁶⁾ 그 동안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 속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되기 위하여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엡 5:26-27). 신자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

55)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33.

56) Peter Wagn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5.

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견해이다 (엡 4:13).

나. 양적 성장으로 보는 견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 들게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이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고 있다.⁵⁷⁾ 도널드 맥가브란도 역시 1955 년 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줄곧 하나님은 그의 잃은 양을 찾아서 교회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주장하였다.⁵⁸⁾ 맥가브란의 활동에 뜻을 같이한 사람들은 그 성경적 근거로서 예수의 지상명령,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20)라는 말씀을 들고 있다. 이로 보건대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나 활동자체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며 또한 교회의 질적 성장보다는 수적인 성장을 오히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성장의 양적 극대화활동이 가져다 준 효과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질적 성장을 수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완전하게 교회의 성장을 정의하는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 종합적인 견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마 13:1-33) 등은 그 수의 급격한 증가들을 나타내어 주는 내용들이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양적 증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 받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각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고전 12 장; 엡 1:23).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성장은 성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영적인 성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니지 못하였다면 미숙한 교회가 될 것이며, 영적으로는 성숙한데도 교회가 극소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 역시 영향력 있는 교회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를 포함하는 교회 성장 개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7) Peter Wagn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27.

58) Ibid., 19-20.

2. 교회성장의 요소

가. 올바른 진리 선포와 실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신자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의 변화와 주변의 유혹에도 동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올바른 말씀과 그 것에 따른 경건한 삶을 통해 어린 초신자들을 도와 주고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성경공부체계를 갖추어 교회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각 지체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나. 성령으로 주도되는 복음 전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 없다. 교회의 성도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증가하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여 주신다. 이교도들의 포교활동과 같이 성령의 능력 없이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는 있겠지만 열매를 맺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으며 더 나아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행 1:4-5). 이것은 복음전파가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될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신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보다는 신자가 얼마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은 초대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보거나 오순절교회 같은 일부만의 활동으로 치부해 버렸으나 성령의 오신 목적은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요 16:7-11),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에게로 옮기고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

령의 직접적인 역사뿐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오늘날의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증거를 위하여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신자에게 임하면 우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자신이 받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서 다른 영혼 (이웃)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싶은 동기가 유발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곧 자신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외부적으로는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증거로 나타난다 (갈 2:20). 그러므로 신자가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다. 평신도의 헌신과 충성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또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위해 소명을 받아⁶⁰⁾ 몸 된 교회 안에서 각기 지체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공동체 속의 신자에게는 헌신과 충성이 요구되어 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몸 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헌신과 충성의 구체적인 본을 보여주셨다. 즉, 그는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충성의 모델을 제시하여 주셨다. 따라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예언자적 백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회에 헌신하며 그 헌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충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령의 역사에 내어 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⁶¹⁾

이렇게 하나님은 헌신되고 충성된 신자들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역을 성취해 가신다. 헌신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순종인데 순종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면면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회는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성장하게 된다.

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선한 사업 지원

59) Peter Wagner,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인천: 임마누엘, 1992), 38.

60)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323.

61) Ibid, 324.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고·최선의 선행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증거 외에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관련하여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공동체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의식주 문제 등 사회적 필요를 채워가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굶주리고 병든 자들, 갇히고 헐벗은 자들, 결식 아동들과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구제와 봉사의 손길을 베풀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들의 열성적인 복음증거와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교회이다.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곧 세상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을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돕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회 봉사활동과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교회성장의 장애 요인들

가. 양적 성장 중심의 사고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으로 데려다 놓으면서 교인수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수적 증가만을 중요시하다 보면 신자들의 영적 성숙과 교회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매우 소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교회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특히 양육하거나 말씀으로 교훈하는 내용도 매우 피상적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으며 합당치 않은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신자가 주를 찬송하면서도 도박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신자들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하다. 아무도 그의 삶을 간섭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래알같이 연합하지 못하며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그들 간에는 익명성이 지배한다. 어떤 측면에서든 양적인 성장만 도모하는 교회는 사회에 미치는 건전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의 비판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 쉽다.

나. 기복주의적 설교

현대사회가 물질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 나오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정치·경제·사회·가정 등 모든 면에서 형통하며 내세에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기복적인 설교들이 수없이 행하여졌다. 이러한 설교들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교

회를 인본주의적인 집단으로 변질시켰고 많은 모순을 초래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가면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병원이나 의사에게는 축복 받아서 병원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설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출세하는 축복의 통로이고 사업성공의 수단이자 자기 건강의 전담의사로 전락시켜 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교회의 폐쇄성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넓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구자나 정상인, 고아와 과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아무 부담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람들의 신분이나 민족 그리고 심지어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모이기도 하고 가진 사람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 교회들은 교회의 성장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유상종(끼리끼리 모임)을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를 형성하여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에는 교회의 분위기와 수준과는 다른 모습과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혈연·지연중심의 교회는 혈연이나 지연 등과 같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한다. 같은 직업이나 지역출신, 혈연과 학연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그 조건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배척하지는 않으나 교제권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적인 교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쌓는다. 그 결과 그 밖에 다른 사람은 그곳에 적응하기 어려워 떠나가거나 주변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적 규범이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로 간주하고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분방한 신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금욕과 지나친 성결을 강조하여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교회에는 죄와 허물이 많고 소외된 사람들이 감히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⁶²⁾

라. 그릇된 헌금관과 예산 집행

신자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며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62) Peter Wagner, 효과적인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14.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헌금은 강요나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이나 분위기, 의무감, 강요 등에 의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헌금을 매우 강조하고 더 나아가 지금 없으면 나중에라도 내라는 뜻으로 작정 헌금시간을 갖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교회건축과 같이 교회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있으면 예산마련을 위해서 대부흥회를 개최하여 충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즉,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부흥을 위해 부흥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예산 마련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현대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교회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회의 재정 활용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다. 교회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일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결산 공동의회, 형식적인 선교와 구제예산, 교회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회 행정비과 목회자 사례비 등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구심을 유발시켜 왔던 것이다.

마. 올바른 지도력의 결핍

지도자는 신자들의 향도이다. 신자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올바른 지도력이 중요하다. 언제나 목회자는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신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감화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임금처럼 권위적으로 지시하거나 극히 사무실의 책임자같이 행동해서는 올바르게 신자들을 섬기거나 양육할 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올바르지 못한 지도력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

바. 비수용성

교회 안에는 언제나 주류와 비주류로 성향이 나누이고 목회자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부류와 무관심 부류 및 반대 부류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반대부류가 있을 때 교회의 목회자들과 주요 사역자들이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더욱이 목회자가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경우에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교회를 떠나거나 무관심층

으로 합류한다. 교회 지도자들과 반대 부류간에 대립이 심화될수록 비인격적 충돌이나 언론 공개, 법정다툼 등까지 비화되어 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상호간에 수용적이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교회의 분과와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사. 지역사회와의 지리적·사회적 격리

교회는 성도들의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멀리서 차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의 사람을 껴안고 지역의 문제 속으로 거룩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전원 교회라든지 새로운 교회건축 등을 이유로 성도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목민센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지역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지역 사회 속에서 그 교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나 지역사회의 중요 제반문제에 무관심 내지 문제유발자가 된다면 교회의 성장은 커녕 도리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아. 소수의 참여

교회의 목회자와 지도계층만 독주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은 수동적이거나 마지못해 하는 소극성을 띠기 쉽다. 수동적인 교회는 활력을 상실하며 주변의 상황변화에 적응력이 약화되어서 마침내는 정체하게 된다. 따라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개개인이 소유한 은사와 능력대로 서로를 섬기고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4. 교회 성장을 위한 지체들의 역할

가.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

목회자는 인도자이며 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깃발과 같은 사람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루어 가는 역할을 목회자가 잘 감당하여야 한다. 교회의 기초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성장 역시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마 16:19). 그러므로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체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운영체계를 확립시켜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에 대한 소유의식과 교회상속 등의 시각을 반드시 극복하여야 한다. 목회자가 자기 수고와 노력에 눈을 돌리면 독단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를 세웠고 키웠으며 내가 끝까지 말아야 잘된다는 오류와 훗날에는 자기의 자녀가 아니면 반드시 친족에게라도 상속시키려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만다.

목회자는 항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목회자 자신이 없어도 유지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필요성이 있다. 교회에 대한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만 위임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나 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일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각기 자기의 은사와 기능을 따라서 봉사하여야 효과적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는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목회자 개인의 성결한 삶과 안정감 있는 태도가 요구되어진다. 목회자의 성결한 삶은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세속적 사고와 태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친교중심의 사교단체 같은 인상을 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실천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정확히 선포하여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목회자의 성결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경과 성경을 적용하는 생활을 연구하여야 한다.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적인 교훈은 공허하고 생명력이나 감화력이 없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머리와 가슴속에 항상 머무를 정도로 성경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깊고 넓으며 높고 한이 없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자기 개발이 이루어진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라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만은 시기와 투쟁과 불만의 요소이며 악덕이기⁶³⁾ 때문에 악마는 목회자들을 교만하도록 유혹한다. 천사도 설교자도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끝까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신자를 대해야 하며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63) Richard Baxter, 참목자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67.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역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포근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화목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에는 앞장서고 성도들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들로 인정하여 주는 삶,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그 상황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적응시켜 나감으로써 자신과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매사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뚝고 나가는 저돌적인 적응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밝은 자아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목회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방법을 주실 것이다.

나. 바른 신자의 역할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공동체의 핵심 요소인 평신도들의 역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 아래서 한 성령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하여야 한다. 확고한 신앙과 증언의 자세가 있어야 하며 지도자와 함께 가고 있는 길과 목표를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열망으로 훈련에 임하고 또한 받은 훈련을 통하여 기동성 있게 교회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신자들은 훈련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성숙해져서 다른 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져야 한다.⁶⁴⁾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진 교회는 성장하고 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갈 것이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자원하여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기를 좋아하고 모자란 이들을 마음을 같이

64) Peter Wagner,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54.

하여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교제는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해 진다. 나아가,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견고하게 연합된 응집력으로 교회가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내·외부사역을 성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신자들은 공동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견고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회자와 교역자들 그리고 몇 명 정도의 소수 전도자들만이 전도사역에 참여할 뿐, 나머지 대부분의 신자들은 방관자처럼 구경만 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의 증거능력과 가르치는 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또한 신자들은 방관자로 머물지 않고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신자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친교, 교육 등)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신앙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분명히 신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마 28:18-20; 요 17:18). 그들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맡은 전도자로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복음의 씨앗들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과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이웃과 이웃이 직장과 직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공의로 밝은 사회가 되어가도록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내부지향적인 신앙이 아니고 사회지향적 섬김과 봉사 그리고 복음증거활동을 통해 교회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한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⁶⁵⁾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와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섬김, 가르침, 지혜, 지식, 구제, 대접하는 일등 은사는 다양하며 ⁶⁶⁾ 또한 직업이나 재능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런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신자들로 구성되고 연합하여 교회안팎으로 복음증거와 함께 영향력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제 3 절 요약 및 결론

65)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38.

66) 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주로 은사에 대하여 로마서 12 장, 고린도전서 12 장, 에베소서 4 장에 나타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은사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 헌금, 지도력, 긍휼, 지혜, 지식, 믿음, 신유, 기적,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통역, 사도, 서로 돕는 일, 행정, 가르치는 일, 복음전하는 일, 목사 등이다.

교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사랑, 진리, 봉사와 구제,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곧 교회의 영적·양적 측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리선포와 실천, 성령으로 주도되는 복음 전파, 평신도의 헌신과 충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선한 사업지원 등을 통해 교회성장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회성장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신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제반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끊임없는 개혁과 새 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략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 성장 전략은 이미 서술한 교회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전략이어야 한다. 제 1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 활동은 교회의 본질적 기능회복과 성장에 가장 적합한 구성과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교회 소그룹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 소그룹을 어떤 원리에 따라 이끌어 가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제 3 장

교회 소그룹의 구성과 전략

제 1 절 교회 소그룹의 형성방법과 원리

교회의 성장을 위한 소그룹 활동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6 명 이상으로 모임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세워진 그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번식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굳게 세워져야 한다. 본 절에서는 소그룹이 처음부터 어떻게 세워지며 거기에 필요한 원리를 제시하였다.

1. 소그룹의 형성방법

소그룹 활동은 구성원과 리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다면 효과적인 소그룹 활동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리더와 성령의 요소는 소그룹 형성의 주체적인 요소가 되므로, 여기서는 소그룹 형성 방법을 자연 발생형과 의도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연발생형

사람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그룹들을 형성한다. 소그룹 역시 이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직업, 연령, 성별, 취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연발생형 소그룹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대교회에서 형성되는 자연발생형 소그룹들은 직업, 취미, 지역, 연령 등의 동일성 내지 이질성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현대사회의 구조가 거대화되고 관료제화되어 가면서 현대교회도 대형화와 관료제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회의 대형화와 관료제화 현상은 교회구성원인 신자들이 하여금 비인간적이고 익명성을 띠게 하면서 개인주의를 조장하였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신자들은 뿌리깊은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소외와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많은 소그룹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던 것

이다.

나. 의도형

의도형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리더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소그룹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제자훈련 및 신앙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 소그룹을 형성한다. 교회에서 소그룹 운동을 교회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교인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기도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봉사와 교제에 있어서 혼자서 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므로 모든 신자는 둘 이상의 모임 속에 소속되어 그 가운데서 성장해 가야 한다 (히 10:23-25).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는 자연발생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목적과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임이든 어디에든지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엡 2:19; 4:15-16). 이렇게 “교회성장” 과 같은 일정한 목적을 의도로 만들어지는 소그룹을 의도형이라고 한다.

2. 교회 소그룹의 형성원리

교회의 성장을 위한 소그룹은 어떤 과정 내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그룹 형성 과정과 학자들의 공통의견, 개인적 경험 등을 참고하여 교회 소그룹의 형성원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 선택

교회 소그룹을 형성하는 첫 번째 원리는 선택이다.⁶⁷⁾ 선택은 자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교회 소그룹을 구성할 때 특히 제자훈련을 위한 소그룹을 구성하려 할 때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형성의 주체가 되는 리더의 선택에 의해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회 소그룹과 구별된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기간 중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열 두 제자를 선택하셨다 (막 3:13-19).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핵심그룹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먼저 기도하신 다음 (눅 6:12-16) 열 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과정과 원리를 <표 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1> 예수그리스도의 제자선택 기준

67)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21.

구 분	기 준	태 도 행 동	근 거
선택범위	추종하는 허다한 무리	12 명 선택	(요 2:23-25, 눅 14:25-26)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눅 6:12-13)
	70 인의 제자들		(눅 10:1-2, 17-20)
	12 명의 제자소그룹	3 명 선택	(막 9:2; 마 26:36-37)
제 자 소명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	리더 중심	(막 3:13)
제자들의 직업	성직과 관계없는 세상속의 직업	다양성추구	(마 4:18-22; 마 9:9)
제 자 소명목적	제자선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짐	목적지향적	(마 4:19; 막 3:14-15)
선택시 공통성	영적진리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	진리 중심	(요 1:36-39, 45-48; 6:66-69; 마 16:15-16)
선택전 준 비	많은 기도와 철야 기도	신중성	(눅 6:12-16)

이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 소그룹 선택은 매우 신중하고도 목표 지향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⁶⁸⁾ 아무나 선택하여 제자그룹에 들게 하지 않고 그들의 직업이나 성별 그리고 자세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로 소그룹을 만드신 것이다. 따라서 각 교회가 성장을 위한 소그룹 형성에 있어서 무조건 교회의 구성원 내지 인접구역이나 교회당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지역, 신앙기간, 헌신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소그룹 구성원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⁶⁹⁾ 특히 교회성장을 위한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세와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영적 활동에 참여할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밥 잭스 등은 적극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령의 열정, 기도 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⁷⁰⁾

나. 씨앗그룹 형성

68) P. T. Chanda 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85), 25-26.

69) Neil F. McBride, 성공적인 소그룹만들기,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9), 63.

70) Bob & Betty Jacks, 소그룹을 통한 효과적인 전도,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9), 58-59.

교회 성장을 위하여 전 교인을 소그룹화 하기 전에 먼저 몇 개의 씨앗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체 교회 안에서 과급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씨앗 그룹의 구성원들은 교회성장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그룹 구성원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해 나갈 때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으며 힘을 결집시킬 수 있게 되며, 이러한 활동과 응집력은 교회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소그룹 안에서는 가끔씩 그룹목표를 재확인시켜야 하며 그룹 멤버들이 이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수용하여야 효과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장년부나 청년부 등 각 부서와 관련하여, 씨앗그룹을 형성하여 교회전체에 확대시키는 방법은 각 부서를 대표하는 1-2 개의 씨앗그룹을 형성하여 그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고 씨앗 그룹의 구성원을 분화시켜 또 다른 소그룹들을 형성시켜 나간다. 새로운 소그룹 재생산을 시작하는 교회는 그 성장속도의 여부에 관계 없이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다. 목회자의 솔선수범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는 데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분명한 목표와 소신이 있어야 하며 교회의 지도층, 즉, 당회나 정책위원회의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몇몇 주도적인 개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소그룹은 해당 소그룹 활동이 매우 건전하고 유익한 소그룹 활동이라 하더라도 교회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기 쉽다. 교회 안에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 아니라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그룹 활동을 소개하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지원을 받아서 연령, 성별, 지역, 그리고 신앙 년도나 헌신의 열정과 배우려는 자세를 고려하여 모임의 규모나 대상을 선정한다. 로버트 E. 콜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생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었다”고 하여서⁷²⁾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빈부나 학력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정과 신앙의 자세 즉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소그룹 회원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회원이 되어야 할 사람은 목회자 자신이다. 목

71) Kennon L. Callahan, 성숙한 교회의 12 가지 열쇠, 권오서 역 (서울: 생명의 샘, 1995), 96-97.

72) Robert E. Coleman, 예수님의 제자도, 이상길 역 (서울: 크리스찬 비전하우스, 1993), 29.

회자가 먼저 앞길을 갈 때 양들이 본을 보고 따르게 되어있다. 개척하는 교회라면 남자 소그룹과 여자 소그룹으로 소수의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당회원을 축으로 하여 안수집사를 함께 해도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신자들도 6-12 명 정도의 그룹으로 만들어 제자화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

개척하는 작은 교회의 경우는 몇 명의 소그룹 회원이 모여지면 그들을 씨앗그룹으로 만든 다음, 1 차 그룹이 일정한 모든 육성단계를 마치지 않더라도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새로운 신자들을 맞아들이고 분담하여서 그룹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룹 리더는 육성단계를 다 마칠 때까지 자신의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그룹회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한다. 소그룹의 회원이 늘어나서 이제는 그룹을 분양해야 할 때는 철저히 그들에게서 나타난 은사와 재능 그리고 나이를 고려하여 씨앗 구성원을 리더로 세우고 재분배한다. 그룹분배는 같은 또래나 거주지의 거리나 취미 등을 고려한다.

라. 기도그룹의 활성화

소그룹을 때로는 신앙인들이 서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같은 목표나 비전을 발견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으며 목회자를 중심으로 기도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계획아래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목표와 목적을 교인들에게 주지시키고 전교인이 기도로 동참하게 하면서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는 장로들과 제직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그들이 소그룹 활동의 목표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한 뒤에 그들이 소그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하기로 헌신하고 있을 때 시작하여야 한다.

마. 교회 소그룹의 분명한 목표 설정과 목표 공유

소그룹의 목적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번식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과 계획은 교회를 부흥케 하고 개인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살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빌 헬은 “소그룹의 목적은 소그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을 개발하는 데 또 다른 단계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강조했다.⁷³⁾ 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목표는 신자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여 합심케 하고 받은 은사를 따라 사역을 분

73)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9), 304.

담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내에서 또는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바. 목회자와 장로중심의 소그룹 훈련 도입

소그룹의 목표가 교인들에게 숙지된 다음 목회자는 먼저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장로들이 목회자와 함께 훈련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소그룹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장로를 제외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도케 하는 것은 교회의 동질성에 있어서와 활동역학에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또 목회자가 소그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때는 일시적 활동에 지나고 말 것이며 소그룹 목적과 목표에 빗나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옥한흠은 “제자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락방 (소그룹)을 절대로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동질체로서 그 기능을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장 (리더)은 반드시 교역자의 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맡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⁷⁴⁾ 목회자는 먼저 장로들을 상대로 소그룹 활동을 만들어갈 때 그것을 씨앗그룹 또는 불쏘시개 그룹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단계의 훈련을 맡은 그 장로들은 각기 더 많은 소그룹을 만들어 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 목회자는 소그룹의 전체적인 계획과 목표 그리고 단계적 훈련순서와 과정을 세우고 그것을 소그룹에서 인식시켜야 한다.

첫 번째 장로그룹이 어느 정도 훈련이 진행되었고 팀 리더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면 그들의 그룹훈련이 끝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소그룹 리더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단계별 소그룹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소그룹 회원 중에서 점차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선택하여 세워가야 된다. 또 소그룹에서 필요한 리더와 몇 개의 소그룹은 맡아 관리하고 도와주는 중간그룹 (리더 그룹)의 리더를 고려하여 세워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소그룹을 정한 기간에 육성과정을 갖고 진행하게 될 때 구성원들 중에서 많은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룹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 여러 방면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상담하는 일을 잘하고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그리고 행정과 회계 업무 등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교회의 행사를 계획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또는 손재주와 재정으로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그룹은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듯이 각양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함께 협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다. 이것이

7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68.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사역이요 이것들이 모아지면 전체교회가 든든하고 활기찬 활동을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다. 소그룹의 생성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고 성령과 목회자와 신자가 만들어내는 역동체인 것이므로 모든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케 하고 거기에 목회자가 종의 자세로 먼저 순종하여 신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목회자는 그룹생성의 산파요 그룹 안에서 회원들이 상호협력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통해서만 성공적인 소그룹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의 생성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전체를 대상으로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고 최초훈련을 시작하고 돕는 전문 요원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그들의 도움으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만들어 교회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요원이 되어야 할 사람은 목회자인 것이다. 목회자는 보통 소그룹에 대하여 제일 먼저 배워야 하고 훈련기관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자신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실시하는 소그룹 활동을 이해하고 도울 수도 있으며 그가 먼저 소그룹의 리더로서 그룹을 만들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모범이 되는 길이므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목회자가 얼마만큼 훈련이 되어 있으며 그룹활동에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옥한흠은 “어떤 유형의 평신도를 만드는 가는 전적으로 지도자의 목회 철학에 달려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평신도의 이미지는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의 목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교역자야말로 평신도훈련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라고 하였다.⁷⁵⁾ 그런 점에서 먼저 목회자가 그룹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목회자는 혼자서 그룹활동에 대하여 연구하고 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하여 배운다 하여도 한계가 있고 실제 사역에는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가 친히 그룹활동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 전교회의 소그룹 활동 체계로의 전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획과 준비기도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부터 전 교인에게 소그룹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목표와 취지를 알리며 교회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몇 사람의 장로들과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데 목회자는 그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이 훈련되면 반드시 전 교인이 그들을 통하여 훈련되리라는 것을 자주 반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48.

많은 교회의 경우 교회 내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어서 운영하는 데는 회장과 부회장 중심으로 임원 몇 사람만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교회를 상대로 소그룹 단위로 묶어서 활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모든 기관이 활력 있는 조직체로 생동감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전 교회가 소그룹 활동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김준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먼저 핵심 교인들에게 전도자 강습을 시켜라. 둘째, 교역자가 직접 몸으로 지도하는 남자들 중에 종순(種筭) 하나를 여자들 중에 종순 하나를 은밀히 키워 영적 구심력을 만들고 서서히 일맥의 영적 기풍이 일어나게 하라. 셋째, 교회를 전도전략, 전투사령부로 삼고 수 백 개의 순과 사랑방 모임을 두며 교회 없는 마을(동네)은 순장화(목자화)된 교인들로 하여금 영친 활동과 양촌 활동을 벌여 육성케 한다. 넷째, 교회는 목회 개념과 목회 영역을 확대하여 약 10 배가 넘는 영역의 불신자 명단을 입수한 후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으로 구분하고 우리 밖의 양이 우리 안의 양으로 들어오도록 관심과 기도로 추적 전도를 해서 사랑의 목회를 시도케 한다.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요한 자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으니 사랑과 영적 소유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커지는 법이다. 그대의 사랑을 증대시키는 비결은 그대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⁷⁶⁾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이 교회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조직하고 훈련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따를 수는 있으나 목회자가 그러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교회성장에 도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체교회가 알지 못하고 은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모든 신자가 익히 그 활동을 알고 함께 기도하므로 보다 더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떠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교회 안에서 지도자 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뒤부터 각 기관이나 계층의 구성원을 소그룹 체계에 편입시키면 전체교회가 마치 소그룹들로 이뤄진 그물망처럼 엮여지면서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 2 절 소그룹의 기능과 형태

76) 김준곤, 순론 (서울: 순출판사, 1998), 37.

본 절에서는 소그룹의 기능과 그 조직의 형태 그리고 소그룹의 효과적인 활동에 대해서 살펴 봄으로써, 교회의 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이루고자 한다.

1. 소그룹의 기능

소그룹이 화석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룹 원들이 안으로는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밖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배우는 일까지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한 기본 훈련이요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꽃이요 열매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함으로써 지상 교회 안의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마 28:18-20) 따라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조직체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그룹은 교회 안에서 교회성장을 위한 생태학적으로 계속 번식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소그룹의 형태⁷⁷⁾

소그룹의 형태는 리더 한 사람이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그룹에서부터 많게는 15명을 모아서 만드는 숫자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크기의 그룹을 만들 수 있으나,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소그룹의 구성원 규모가 6명 내지 12명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수의 그룹은 리더와 깊은 만남과 효과적인 훈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번식의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고 다수의 회원 그룹은 리더에게 많은 시간적 부담도 있고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없으며 불균형적 양육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번식에 있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교회 소그룹을 조직화 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적절한 규모, 즉 최소 6명에서 최대 12명 범위 내에서 교회회원 전체를 지역과 구역을 그룹화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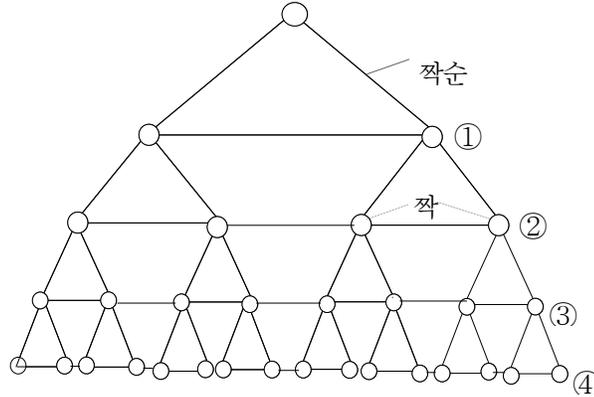
소그룹의 형태는 처음에는 한정된 사람의 수로 시작하지만 2세대부터는 회원에 따라 그가 갖는 그룹의 인원수가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교회 소그룹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담사역자가 필요하다.

가.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제 2 그룹

77) 김준곤, 순론, 37 이하에 나타난 소그룹의 형태에 기초한 것임

30 인을 네 개의 순으로 키워 한 사람이 2 명씩 책임지고 양육하면서 2-3 개월 안에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순장은 2 세대까지 접촉하며 6 명을 직계로 양육한다.

<그림 3-1>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제 2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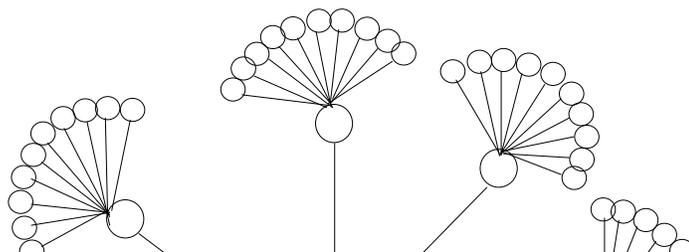


위의 형태는 한 사람이 두 사람씩 만을 키우게 된 사례이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탁 받아 돌 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두 사람만을 맡게 되는 이유는 기존 회원들을 두 사람씩 나누고 그 위에 리더를 세워서 조직할 때 쓰는 방식이다. 소그룹은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조가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군대 조직 같으면 고정된 인원을 위와 같이 조직해도 별스런 변동이 없겠으나 교회의 조직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때때로 두 사람의 조원이 하나로 줄어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그룹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세워놓고 그룹 안에서 수시로 보완해야 한다. 장점이라면 한 사람의 리더가 소수의 사람을 양육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돌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나.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머리 그룹과 10 개의 그룹

2 개의 대순과 20 개의 중순으로 구성되는 1,000 명의 교인 순구조 형태이다 (다음 페이지 참조). 이 형태는 10 명의 리더를 세워서 한 사람이 10 명씩을 맡아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이 또 다른 회원을 10 명씩 맡도록 한 것이다. 리더의 숫자는 10 명으로 한정하였으나, 그룹회원의 수가 처음에는 10 명씩으로 짜여져 있다가 후에는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수시로 조정하고 보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교회 회원을 이렇게 조직할 때에는 그들의 연령과 살고 있는 구역 그리고 직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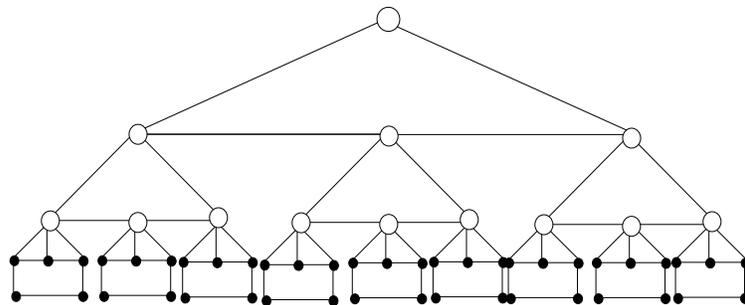
<그림 3-2> 리더를 중심으로하는 머리그룹과 10 개의 그룹



다. 리더를 중심으로 한 3 개의 머리그룹

50 명의 중순장 구조로서 순장이 2 세대까지 12 인을 돌볼 수는 있으나 1 세대 3 명에게 2 세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만 2 세대 즉, 12 명까지 순장이 직계로 양육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림 3-3>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3 개의 머리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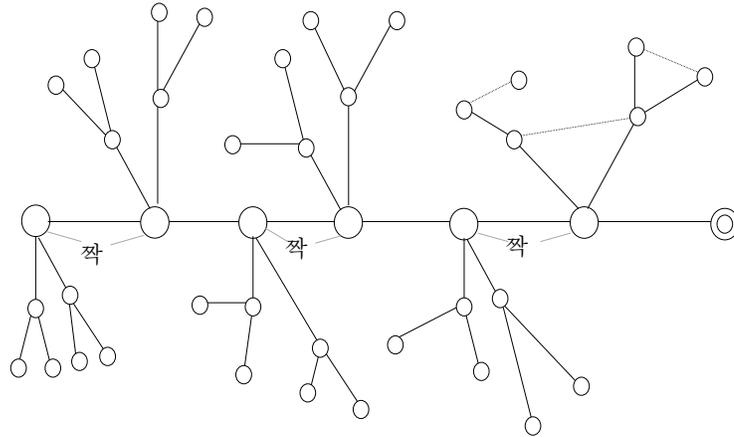


위의 형태는 50 명의 회원을 중간리더와 소그룹 리더를 통하여 조직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의 리더가 모두를 돌 볼 수 없으며 세 명의 중간 리더를 돌보아 주고 그들로 세 사람씩 또 맡기고 그 후에는 3 명 이상 5 명을 맡도록 한 것이다. 언제든지 3 이라는 수에 얽매일 수는 없지만 3 명을 기준으로 하여 4 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5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리더가 2 명이나 3 명의 중간리더만 맡게 되면 맨 위의 리더는 다른 회원을 알 수도 없고 여러 단계에서 지도력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라. 리더중심의 7명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6명의 회원이 3차까지 번식하여 7명씩 7개순을 구성함으로써 중순장 구조가 된 형태이다.

<그림 3-4>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7명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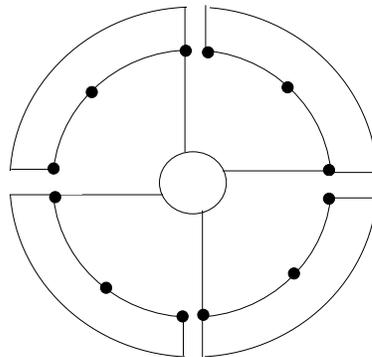


리더가 6명의 회원을 맡아 지도하면서 그들이 각각 6명 정도의 사람을 맡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리더가 첫 번째 세대를 직접 지도할 수는 있으나 제 2세대까지 지도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며 제 2세대는 반드시 6명씩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패턴만 있을 뿐 어떤 그룹은 6명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반대로 1-3명 정도만 맺히는 수도 있다. 유익한 점은 리더가 1세대 6명을 지도하면서 2세대를 그들로 하여금 지도하는데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리더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그룹

2명 또는 3명이 한 짝이 되는 12명의 순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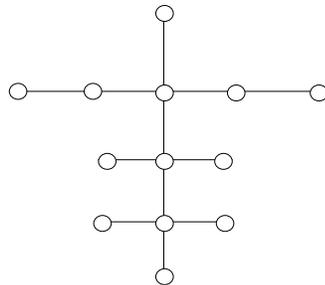
<그림 3-5>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12명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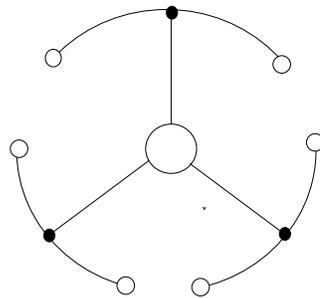
위의 도표는 한 사람이 열두 명을 직접 지도하면서 4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 중의 한 사람을 보조리더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언제나 리더는 12 명을 전체적으로 모이게 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조리더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2 명의 회원들은 리더에게 배우면서 나아가서는 배운 것을 실천하여 그룹을 번식시키는 일을 하여야 한다. 물론 12 명이 모두 똑같이 12 명씩 열매를 맺어서 가르칠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그들은 반드시 제 3 세대의 번식을 해야만 한다. 이때 제 3 세대를 12 명이 각각 그룹을 갖게 되며 그것을 종순이라고 한다. 한편 보조리더는 동료 다른 2 세대의 그룹을 지도하는 데 함께 도와서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리더의 의도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본다.

마. 리더를 중심으로 한 3 개의 그룹과 세포분열

<그림 3-6> 세포분열식



<그림 3-7> 7인 순 구조



위 도표들은 리더가 7 명 이상의 회원을 직접 돌보면서 그들이 서로 돕는 형태이다. 리더가 회원을 일정한 과정을 통해 훈련하고 나면 그 후부터 회원이 상호간 리더와 회원이 되게 하여서 빠른 시간 안에 리더로 독립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그룹에 비해서 개별훈련이 강조되고 있으며 때로는 짝 회원 이외는 다른 회원들과는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바. 네크워킹 (Networking)형 구조

리더 1 명이 처음 6 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뻗어 나간다. 리더 (은성)를 중심으로 처음 여섯 명을 만났으나 어떤 회원 즉, 자매 (은엽)는 다섯 세대에 걸쳐 10 명의 가치를 얻었는가 하면 또 다른 회원 사촌 은실은 그 대에 3 명의 가치를 얻었고 또 친구 수기는 그 대에 2 명

리더는 소그룹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리더의 임무 그리고 리더십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리더의 임무

리더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주무시며 모든 활동을 전체 또는 부분적 제자들 앞에서 친히 모범적으로 보이시면서 실제적 삶의 교훈을 주셨다. 대부분의 공생애를 혼자 지내시는 것은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함께 하는 시간으로 보내신 것이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므로 고치신 일이라든지 전도를 하는 때에도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로 또한 보고 배운 대로 실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가. 삶의 나눔 (Life Sharing)

리더는 회원들과 삶을 함께 하면서 나눈다. 리더는 회원들의 삶을 크고 작은 것까지 빼놓지 않고 파악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동질성과 촉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회원이 슬퍼할 때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도 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눈다. 삶의 나눔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리더와 소그룹 구성원간 뿐만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간에서도 깊이 있는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안내와 솔선수범 (Conducting Leading)

리더는 회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나 솔선수범 하여서 회원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따르게 하는 방향타이며 길잡이이다. 함께 하는 삶은 영적으로나 육체적·물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회원들이 그와 동행하고 따라오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기 위해서 다음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리더는 언제나 신념과 소명과 신앙과 비전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꾸준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과 기도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유지해야 한다. 리더는 개인생활의 스케줄을 끊임없이 지속시킴으로써 나아갈 길을 찾는다. 자신의 스

케줄은 반드시 설정된 목표나 목적에 일치시키고 훈련된 생활로서 몸으로 친히 일하고 실천 하며 무슨 일이든지 목표에 집약시키고 그 목표에 상관없는 것 (시간, 정력, 재정 등)은 과감 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리더는 전 생활을 그 목적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 설정되 었으면 그 목적에 방해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의 양을 질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리더의 목표가 주 예수인 경우에는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갈등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리더는 사명과 비전을 항상 마음속에 키워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며 자기의 자화상을 그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리더는 언제나 문제들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대 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향적이어야 한 다.

다. 최종결정(Final Decision)

회원들과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찬반을 알아보고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그 때 결정은 리더가 하여야 한다. 때로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에는 강 하고 담대하여야 한다.

라. 섬김의 열정 (Passion for Service)

리더는 섬기는 일을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한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으나 섬기려는 리더는 부족하다. 세상은 복음을 갈망하지만 리더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으로 그 문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나 리더는 철저하게 회원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회원들이 리더를 따르게 되고 동행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회원들의 모든 일에 돕는 자세를 가지고 실패와 두 려움을 극복하면서 회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 게 할 때, 리더의 목표와 비전을 전염시킬 수 있게 되며 헌신을 요구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

마. 목표부여 및 성취 유도 (Goal Setting and Accomplishing)

리더는 목표에 맞는 과업을 부여하고 그것을 회원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회원들에게 명령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업을 부여한 뒤 실행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한 가지의 단계를 넘었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확인하고 평가하면서 이끌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리더의 선발

리더는 그룹 내에서 리더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 일정한 훈련과정을 마친 후 재생산성과 효과적인 리더의 임무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리더는 신앙에 의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룹에 자신감을 심어주려면 리더가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누적된 기술과 반복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리더는 소그룹 안에서나 일반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성실과 정직함이 필요하다. 리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회원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 리더는 나아가는 방향과 현실감 그리고 확신 있는 태도가 분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

리더는 어떤 상황아래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로 하여금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편안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감정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실수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재도전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다시 도전하려는 인내와 도전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는 그룹회원으로서 리더를 도와서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여 얻은 것으로 분명한 열매가 있는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를 선발하기 전에 그룹리더는 후보에게 리더의 선발대상이 되었음을 알리고 기도로 준비하게 한다. 그룹리더는 리더후보를 개인적으로 만나 충분히 상담한다. 리더로서 파송(양봉에서의 분봉)식을 하고 계속 돌보게 된다. 리더가 되는 데는 여러 단계의 리더교육을 추가로 받게 된다.

3. 리더의 훈련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내용도 있고 그룹으로 모여서 단체로 받아야 할 것도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훈련할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기도 훈련의 내용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원리와 응답을 통한 신앙체험 등이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의 훈련인 것이다. 전도하는 일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두려움 없이 해 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랑 실천 활동일 것이다.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외로운 사람을 찾아 위로하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찾아 돌보는 훈련이다. 신자로서, 원활한 대인관계와 그 역할을 알게 하고 그 곳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게 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이다.

리더의 훈련은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으로, 활동 계획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각기 맡은 분야를 이루어 감으로써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케 하는 훈련이다. 그룹기도 훈련이나 성경 연구훈련 등이다. 그룹 내에서 모든 회원들이 정한 장소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개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 기도 하면서 리더 훈련을 받기도 한다. 또한 그룹 회원들이 함께 성경연구교실을 갖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발표도 하는 훈련이다. 회원 각자가 주제별 혹은 인물별 성경연구를 해 가지고 모임에서 발표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된다. 또 한가지는 필요한 주제나 부문에 대하여 책을 읽게 하고 그것을 요약하여 발표하게 하는 그룹토의를 만들어 인도하는 훈련이 있다. 그룹 내에서 함께 여행하면서 세상을 배우게 하고 느낀 점들을 발표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는 훈련이 있다. 함께 기거하며 집단 취사와 이동 시 서로 도우며 사회를 배우는 훈련이다.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소그룹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성되기도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진정한 의미의 소그룹은 자연발생적인 경우보다는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형성은 의도적이다. 즉, 의도적인 계획과 훈련에 의해 성장 발전한다. 기존 교회의 모든 교인을 구역이나 교구로 조직하고 지역이나 교구장을 통하여 운영하여 오면서도 그 중에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계층이나 아니면 지원자를 모집하여 특수하게 만들고, 그들만을 집약적으로 훈련하여 소그룹을 세워나가는 일종의 특수그룹을 만든다.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 미리 훈련시켜서 준비해 둔 몇 사람의 리더를 세워서 전체적인 활동단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체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훈련은 소수 정예화 된 소그룹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전 교인에게로 확대시켜 나가는 활동이다. 이런 특수한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전도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을 교회 내에서 만들어 훈련하고 운영하게 될 때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예를 들면 재정문제, 다른 모임들과의 중복, 이질감 등) 언제나 전체적인 교회 부흥의 목적아래 전교인에게 이해시키고 호응을 받아 기도와 물질 및 인력의 후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 후에 목회자는 특수 복음사역을 위한 소그룹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규모는 6-12 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6 명 미만의 그룹이나 12 명 이상의 그룹이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6 명 내지 12 명의 소그룹 구성원의 구성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훈련과정이나 내용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으며 어느 정도 소그룹 활동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자생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 나갈 수도 있다. 조엘 코이스키가 말한 바와 같이, 각 셀 그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전도와 결단을 통하여 그룹이 자라나서 번식하는 것이다.⁷⁹⁾

이러한 소그룹을 만들려면, 미리 선발해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리더후보자는 철저한 헌신의 열정과 성령,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예비 리더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이들은 헌신과 목표, 훈련 그리고 준비 등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제 4 장

교회 소그룹 활동의 운영

79) Joel Cemisky,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23.

제 1 절 거둬들이기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전도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다. 구성원들은 교회 밖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구성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은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전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전도의 실제적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하려 한다.

1. 전도의 필요성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과 의무이다. 소그룹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즉 기도와 협동 그리고 나눔 등은 종국적으로 전도활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해 하셨다 (마 9:36).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 11:28),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마 10:6), 잃어버린 자 (눅 19:10), 또는 죽은 자들 (마 8:22), 목마른 자 (요 7:37) 등으로 그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 자 (롬 5:12)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엡 2:1)로 부른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죄 사함과 새로운 관계회복으로 인해, 영생의 복을 받은 뒤 감격하여 성령의 내재적 활동으로 인한 동기유발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9 장 36 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이 버려져 유리함을 민망해 하시고 동정을 느끼시면서 일꾼이 필요함을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도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를 알려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는데 신자들을 감동하시며 마음에 동기와 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신 것이다 (요 16:8). 사도행전 8 장 26-35 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구원 받은 신자가 불신자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은 본인의 감격과 감사로 인한 내적 동기가 사랑으로 표출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대표적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구원 받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고백한다 (딤후 1:15). 그러나 그는 구원 받고 난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인 전도자로 나섰다. 그의 마음에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었다 (고전 9:16).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후 5:14-15) 그 일로 죽었다 (딤후 4:6-8).

그리스도께서는 전도를 하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다 (마 28:18-20; 막 16:15). 그는 초기사역에서는 전도에 대하여 직접 명령보다는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점점 일관하셨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훗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내 비치셨다. 그것이 곧 전도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명령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끝마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초기사역부터 제자들이 그의 일을 인계 받아서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예수께서 세우신 계획은 점진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⁸⁰⁾

예수님은 항상 전도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 주셨고 전도할 때가 되었을 때, 들썩 짝을 지어 보내셨다 (막 6:7).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두려워하며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임하시고 열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마 28:16) 500여 형제들을 헤아리는 전체 교회 (고전 15:6)에게도 그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명령을 주셨던 것이다.⁸¹⁾ 이렇게 여러 차례의 간접적인 전도의 위임과 직접적인 전도명령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람에게 또는 전체 교회에서 하셨다. 예수께서는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르고 (눅 24:47) 이 일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큰 능력을 주셔서 폭발적이고 적극적인 전도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전도의 사역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행 1:8).

2. 전도의 원리와 자세

전도의 대전제는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의 위임과 명령을 따라서 천국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자에게로 찾아가는 영광스러운 대사적 사명인 것이다 (마 28:18-20).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으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마

80)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85.

81) Ibid., 94.

28:20). 신자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수는 없으므로 매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은 체험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성령으로 충만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효과적이고 권위 있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전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본인이 기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복음을 받아드릴 사람을 만나는 일과 그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과정과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전도하는 일에 가벼운 말이나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전도하는 내용과 방법을 훈련 하여서 듣는 이로 하여금 평생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것보다 찾아 나서는 것이다. 가서 전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전도의 대부분은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몇 가지의 짧은 인사이후에 구원문제의 핵심으로 인도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⁸²⁾

전도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일상적인 전도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전도할 때는 내용에서 빛나가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개인의 체험이나 간증을 짧게 곁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내용은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게 하고 설득이나 세상의 변론이나 철학적인 대화를 피하여야 한다. 전도자는 지나친 강요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여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편 몇 가지의 유용한 전도지나 간단한 전도 도구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전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미소로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대하여야 된다.

3. 전도의 유형

가. 대중전도

설교 행위를 통한 복음제시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대중영상매체와 컴퓨터 매체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게도 되었다. 물론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를 만들어 가능한 많은 사람들 (구도자, 불신자)을 초청하고

82) 김성진, 효과적인 전도 (광주: 복음문화사, 1987), 122.

목사나 전도자가 설교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 자원 즉 사람, 시간, 재정을 총동원하여 집중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학의 원리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내는 것이다.⁸³⁾ 예수님도 회당과 성전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전도 하셨다. 바울은 아래 오바고 언덕에서 아텐 시민을 상대로 많은 군중에게 전도했다 (행 17:19-31).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함으로써 전도하였던 기록이 수없이 많다. 그 후에도 웨슬레, 휘트필드, 찰스 피니, 디 엘 무디, 빌리 그래함 등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였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밖에도 근대 기독교사의 대 부흥도 많이 모인 곳에서 이루어졌다. 1907년 평양에서의 부흥도 일주일간 모인 부흥사경회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대중전도의 모체였던 것이다 (행 2:41, 4:4).

나. 개인전도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개인이나 혹은 한두 사람이었다. 안드레와 베드로 등 사역 초기에 예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로 세워졌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다른 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개인전도는 가장 효과적임이 증명된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5 명에게 개인전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대했다. 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개인전도에 의한 것이다.⁸⁴⁾ 개인전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거의가 개인전도를 통해서 신자가 되었다. 개인전도는 한 사람의 신자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 속의 전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패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 문서전도와 마스크 전도

예수님 당시에는 문서전도나 마스크를 통한 전도가 있을 수는 없었으나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문서를 통한 전도운동이 선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했던 지역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하는 일이 있었으며 베드로나

83) 김준곤, 순론, 59.

84) 김성진, 효과적인 전도, 121.

요한도 그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내어서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굳게 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편지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양육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그 후 과학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문서운동과 매스컴을 이용한 전도활동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전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각종 영상매체와 컴퓨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이다.

4. 전도의 도구

가. 기초적 도구

소그룹 안에서 이뤄지는 전도는 팀 (Team)으로 하는 방법과 개인이 단독 혹은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팀 내에서 전도를 하든지 단독으로 전도하든지 기본으로 쓰여지는 것은 전도지일 것이다. 이외에도 교회신문, 설교 테이프나 비디오, 소책자 등이 활용되어 왔다. 소책자들로는 전도폭발 훈련교재, 네 가지 영적 원리, 다리 예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도폭발 교재와 사영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신학적 비판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을 진리와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전도 소책자인 사영리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나. 사영리 전도 소책자

(1) 내용

이 전도용 소책자는 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학생선교회 대표 빌브라잇 (Bill Bright)에 의하여 기록 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온 것이다. 이 소책자는 최근까지 약 3억 부가 넘게 인쇄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이 소책자는 포켓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페이지부터 간단한 인사와 물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이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사이의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죄인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과 그렇게 되는 데에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앞의 내용을 전하고 난

뒤에는 함께 기도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으며 영접한 후에는 성경에서 약속한대로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한 걸음씩 개인적으로 신앙이 자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의 권면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권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된다.⁸⁵⁾

(2) 사영리 활용 훈련

사영리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배우고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즉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한다. 전도 현장에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사영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사영리를 한 페이지씩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한 다음 첫 페이지부터 인사하고 도입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페이지씩 피전도자와 함께 대화하듯 읽어나가는 훈련이다. 중간 중간에 몇 번의 확인 질문과 간단한 도식의 설명을 곁들이며 자연스럽게 읽어주고는 몇 개의 성경요절을 가지고 피전도자로 하여금 읽게 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내기도 한다. 후반부 즉 11-15 페이지에 이르러는 상호간 전도자와 피전도자 사이에 지금까지의 성경요절을 가지고 짜여진 몇 번의 질문을 하고 답하게 함으로서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또는 관심만 있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케이스 별로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시 만나서 양육에 들어갈 것을 제의하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확인 과제를 준 다음 기도하고 마치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론강의와 연습 그리고 실습을 통한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약 10 분간의 여유만 있으면 소책자를 꺼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다. 이러한 훈련은 L.T.C. (Leaders Training Class) 혹은 L.T.I. (Leaders Training Institute)라고 하는데 약 4 박 5 일이나 60 시간 이상의 개인 혹은 합숙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사영리의 장점

85) Bill R. Bright, 네 가지 영적 원리, 한국대학생선교회 역 (서울: 한국대학생선교회출판부, 1999), 16.

사영리의 장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말문을 쉽게 열어 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등

그리스도의 주장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간결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기도가 실려있다

성장을 위한 권면과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말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신을 준다.

주제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해 준다.

항상 준비시켜 준다.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전도기술을 가르쳐준다.

내용이 매우 쉬워서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도자와 피 전도자가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

소책자로서 휴대가 편리하다.

그림이 피전도자의 이해를 쉽게 한다.

짧은 시간에 좁은 공간에서도 밀도 있게 전할 수 있다.

제2 절 복돋우어 주기

소그룹 안에서 새신자를 도와서 자라도록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온갖 정성과 희생을 다하면서 기르는 것과 흡사하다. 과연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효과적 인가? 양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양육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양육의 과정에서 전체 교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하는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1. 양육의 필요성

양육이란 어머니가 새로 태어난 자녀를 키우듯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신자가 자립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로 무장시켜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이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것인 만큼, 새로 태어난 신자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줌으로써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 (골 1:28-29,2:2-3).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는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였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전도를 하는 일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양육을 하는 일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도인을 도구로 삼으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또 제자를 낳고 가르치는 유모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만일 이렇게 새신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새신자가 저절로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는 것이다. 먹여줌이 없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자라지 못할 것이요 먹기는 했는데 운동이 없으면 비대하여 활동을 못할 것이요 혼자서만 자라나면 이웃도 형제도 몰라보는 자가 되어 사회성이 결핍된 사람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구자가 되고 말 것이다. 영적으로도 새신자는 건강하고 진실하며 올바르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가르치고 세워주어야 할 때를 놓치고 나면 새 신자가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옷자라거나 미숙이나 정박아처럼 비뚤어진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다. 바울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 라고 하면서 자라지 못한 교회를 한탄하고 있다 (고전 3:1-2). 새신자가 반듯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양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엡 4:12-16).

2. 양육의 원리

가. 즉시성

새로운 신자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어 열매 맺게 하는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원리와 이론이 따른다. 첫 번째로, 새신자를 즉시 양육하는 원리이다. 바울은 “골로새교회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자로 세우려 하였고 자신 안에서 역사 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과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새신자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와 변화되고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껴서는 안 된다. 새신자를 위해서 간단하면서도 익히기 쉬운 양육 자료를 갖고 시작하되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미래의 비전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신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여야 한다. 양육하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의 믿음의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다.

나. 철저한 기도

새신자 양육을 위해, 리더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가르치며 기도하며 마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신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뿐임을 알고 성령이 그를 성장시키도록 의탁하고 자신은 철저히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자신을 드려야 한다. 리더 자신은 성령께 순종하고 매순간마다 의지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즉 리더의 모든 일상생활이 성령께 어떻게 인도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이며 가르치는 훈련인 것이다.

다. 친숙성

리더는 새신자의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알아야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영육간에 그의 필요에 민감하여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새신자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새신자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섬기는 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의 남은 삶을 남에게 주는 일에 사용해야 될 것이다 (막 10:45).⁸⁶⁾ 섬김과 앎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리더는 새신자를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채우고 사랑으로 받드는 일로 양육하여야 한다.

라. 점진성과 단계성

새신자를 단 시간에 가르치거나 성장하게 하지말고 점진적으로 전인격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빨리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점진적으로 기초를 잘 다지면서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성장보다는 시간을 갖고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신앙을 다져 가는 것이 훗날에 많은 역경과 시련에도 잘 견디며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 가는 것이다. 점진적 성장에는 반드시 반복된 양식의 공급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 실천성

86)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한국네비게이트선교회 역 (서울: 한국네비게이트선교회출판부, 1984), 137.

듣고 배우고 본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새신자 역시 성품과 은사 그리고 가정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도 다르며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야도 다르다. 따라서 리더는 새신자를 가르치는 일에 그들의 각기 다른 필요에 반응하면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바. 참여성

리더는 새신자를 그룹 안에서는 한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사실상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양육하는 수단인 것이다.⁸⁷⁾ 처음에는 교회 일원으로 활동하기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의 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리더는 새신자에게 그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귀한 사람임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각 회원은 이러한 사역에서 해야 하는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⁸⁸⁾ 교회 안에서 그에게 작은 일부부터 과업을 주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이다.

사. 포용과 교정

새신자는 신앙생활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든지 전체 교회 안에서든지 많은 부분에 익숙하지 못함으로서 실수와 오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 리더는 그를 이해하고 돕는 일이 중요하다. 리더의 용서와 사랑의 진실성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제자답게 하는 것이다.⁸⁹⁾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하는 일 보다는 싸매어 주어야 한다. 분명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정책은 교회가 어떤 양육방법을 채택하든지 그 기초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인 보호자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⁹⁰⁾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해를 시키며 속도를 맞추도록 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아. 재생산의 비전 부여

87)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47.

88) Ibid., 47.

89) 김광식, 초신자 육성을 위한 14 단계 (서울: 크리스찬비전사, 1975), 32.

90) Robert Coleman, Ibid., 49.

새신자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전도 해봄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새신자로 하여금 재생산을 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영적 필요를 느끼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비유 (요 15: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가지는 곧 새신자임을 알 때 가지의 존재함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⁹¹⁾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자신도 더욱 그룹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3. 양육의 과정

양육은 곧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도와 성숙된 신자로 세워 가는 것이다. 이 일에는 새신자가 과거에 갖고있던 생각하는 행동의 습관이라든지 실제적 생활 습관 등을 리더와 함께 교정하고 세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 양육의 다섯 가지 요소

(1) 말씀

한 사람이 양육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영양을 공급하고 훈련하듯이 신앙 성장의 영양소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삶에 적응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양식으로써 순전하고 신령한 젖 (벧전 2:2)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성경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떡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생명의 양식임으로 예수께서도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함을 가르치셨다 (참고, 마 4:4). 가르침을 통해 새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과 사명을 확신할 수 있게 할 것이다.⁹²⁾

(2) 기도

91) Robert Coleman, 주님의 전도 계획, 109.

92)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86.

새신자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야 한다. 기도는 성공적인 전도와 양육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현대교회 신자들의 큰 문제중의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 없이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많은 신자의 삶에 그릇된 것들이 드러난다 (약 4:14). 리더는 새신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도 또한 리더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룹과 교회 나아가서 세계와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바울은 여러 번 그의 서신에서 그의 전도를 통해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하면서 그들이 영적의 진리에 눈을 뜨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여 자라도록 기도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엡 1:15-23; 3:14-21; 빌 1:3-11; 골 1:3-12). 리더는 이렇게 하여 날마다 새신자가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서 그의 신앙이 자라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 달라고 (마 9:37-38)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므로 전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⁹³⁾

(3) 교제

새신자에게 그룹과 교회의 지체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게 하는데 점점 나아가며 참여케 하여야 한다. 교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회나 그룹의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주체의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을 통하여 알게 함으로써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모여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선행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구제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펼칠 때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이나 수고하는 노력들을 제공하고 싶어지게 된다.

(4) 전도

새신자를 교회와 그룹 안에서 자신의 신앙동기와 현재의 모습을 간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한 후 리더와 더불어 실제적인 전도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언제나 소그룹의 건강을 재는 척도는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얼마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⁹⁴⁾ 즉 자신이 얼마나 밖으로 나가서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인생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93) Peter Wagner, 기도하는 교회, 홍원팔 역 (서울: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6), 159.

94)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지침서, 228.

있는지를 알려주고 교회의 전도행사가 있을 때마다 리더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와 함께 선교여행이나 선교사를 돕는 일을 위해서도 자신이 참여하고 헌신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가까운 생활의 영향권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하고 멀리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단기선교도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5) 참여와 헌신

새신자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려 지체로서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은 헌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새신자는 그의 재산, 재능, 몸과 마음, 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다가 이제부터는 그의 참 삶과 활동과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재능, 시간, 삶의 모든 것을 자신보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함을 가르치게 된다. 신앙생활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 (고후 5:15)을 가르쳐서 실천케 함으로 성장을 돕는 것이다.⁹⁵⁾

나. 양육과정

양육은 리더와 새신자 구성원들간에 다섯 가지 요소가 균형되게 작용하게 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리더는 그에게 맞는 말씀과 보호를 통해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준비기에 이르면 새신자의 가치체계가 말씀과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중심화되도록 삶을 통해 인도하여 간다. 새신자가 이러한 과정을 다 마치면 성취할 수 있는 사역을 부여하는 훈련 등을 통하여 양육할 수 있는 예비리더로 준비시켜 나간다. 훈련까지의 과정이 순조롭게 마치지면 리더로 세우고 새 임무를 부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과정은 마무리 된다. 이러한 양육의 과정과 과정별 세부사항은 다음 표<4-1>과 그림<4-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 양육과정 제안

단계	수준	그룹훈련 내용	실천 학습
----	----	---------	-------

95) Ibid., 554.

초급 과정	회심자	개인적 만남을 통해 전도지 공부 새생활시리즈 일대일성경공부교재 공부 요한복음 읽기	전도 견습 복음전도 실천 교회출석
기초 과정	초급과정 수료자	전도훈련(초급) 받기 10 단계 입문(1-2 권) 공관복음서 읽기	복음전도 실천 경건시간 갖기 교회부서 활동
중급 과정	기초과정 수료자	전도훈련(중급) 받기 10 단계 3-5 권 공부 가정생활 세미나 참여 복음전도 보조리더로 시범 사도행전-계시록 읽기	기초실천학습내용 월말 퇴수회 참여
고급 과정	중급과정 수료자	전도훈련(고급) 받기 10 단계 6-10 권 공부 리더훈련 참여(소그룹) 교회론, 헌금/구제, 선교특강 참여 모세 5 경 읽기	중급실천학습내용 기도노트 기록 구역활동 참여
지도자 과정	고급과정 수료자	전도훈련(상급) 받기 승법번식의 원리연구 참여 팀전도 참여 직업관, 교회지도자론 특강참여 전도훈련 지도 구약선지서와 시가서 읽기	고급실천학습내용 금식기도회 참여
상급 과정	지도자과정 수료자	전도훈련 강의 구역예배인도 및 설교 전도 및 봉사활동 참여 팀 전도 계획 및 참여 성경주제별·인물별 연구 기독교 역사·문화·경제특강 참여	지도자실천학습내용 단기선교 참여 구역예배인도 성경연구강의 그룹활동리더로 봉사

<그림 4-1> 성장을 위한 최적 훈련과정⁹⁶⁾



4. 양육의 방법

가. 만남의 약속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새신자는 지체 없이 양육에 들어가야 한다. 전도를 한 뒤 결심 하였으면 곧바로 양육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만남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남의 필요성을 짧게 설명하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 둔다. 이 약속은 새신자와 리더가 함께 보는데서 상호간 수첩에 기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요한복음을 몇 장 읽고 첫 번째 만남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기도하여 주고 헤어진다. 이러한 만남을 약속한 새신자에게는 신앙의 결심과 더불어 중요한 결심을 하게 하므로 기도하고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에서 새신자는 처음 만나는 만남을 사탄으로부터 방해 받기 쉬우므로 리더는 철저히 기도으로 무장한다. 리더로서 새신자와 무엇을 함께 나눌 것인지를 선택하고 새신자에게 가장 크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나의 공헌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⁹⁷⁾ 만남을 위하여 많은 기대와 기다림을 갖고 만나기 하루 전에 전화를 걸어서 만남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확인한 후 내일 만남을 기대하게 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나. 첫 번째 모임

리더는 만남의 장소에 언제나 10 분전까지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새신자를 기다려야 한다. 만남은 매우 자연스러워야 하며 기대감과 반가움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리더는 그를 반갑게 만나 인사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지난 며칠 동안의 생활이나 날씨 등에 대화한 후 요한복음을 읽었는지를 묻고 어려웠던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하여 묻는다. 짧게 묻고 대답하고 모임의 주제로 들어가야 한다.

교재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는 새신자에게 처음부터 강하고 엄격하고 지나친 외부적 경건을 강조하지 않고 가볍고 쉬우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안한다. 리더는 “오늘은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함께 잠깐 공부해 볼까요?”라고 말하고 교재를 편다. 교재를 주고 리더는 몇 마디의 도움 말이나 교정 외에는 교재의 내용이나 그곳에서 묻는 내용에 대하여 새신자가 읽고 대답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가지 질문이나 내용에 대하여 오랜 시간 토의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요절을 찾는 것도 많지 않아야 되며 질문에 대한 것은 새신자 자신이 그 답을 찾아내고 생각하게 한 뒤 기록하도록 돕는다. 리더는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며 마지막 부분의 결론정도를 함께 생

97) Anne Ortlundo, 소그룹 지도를 통한 신앙훈련, 보이스사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6), 259.

각하고 알려주고는 그의 반응을 살핀다. 가끔씩 리더는 관계된 내용이 어렵거나 진부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새신자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짧게 들려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능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60 분 정도 안에서 마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간단한 과제 즉 요한복음 읽기와 소책자 등을 주고 함께 손을 잡고 새신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후 리더가 기도하고 마친다.

다. 두 번째 모임

두 번째 만남은 새신자를 세 번째 만나는 모임이므로 훨씬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지난 며칠동안의 생활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한 대화가 있는 다음 리더는 요한복음과 소책자를 읽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짧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재를 갖고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봅시다.”하고 말한 뒤 교재를 주고 시작한다. 교재내용은 새신자가 읽게 하고 문제도 그가 성경에서 찾아 대답하고 기록하게 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찾는 법을 일러주고 스스로 찾아 읽도록 권유한다. 관계된 내용에서 그의 사생활이나 직업 가정 등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아 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리더가 도울 일은 없는지 타진해본다. 이것은 리더가 새신자의 삶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과정이 다하여 갈 때 최종적으로 함께 결론을 내리고 한 두 가지 제언을 한다. 그 중 하나는 리더가 주말에 전도하러 가는데 함께 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되도록 시간을 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요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한가지는 오는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다. 강요하지는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끌지 말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음을 알고있으며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지나치게 교회출석을 권유하다가 오히려 만남이 무너지고 마는 경우도 있다. 새신자가 긍정적으로 토요일에 있을 전도에 참여코자 하면 함께 데리고 나가서 참관하고 가능하면 짝막한 조연이나 간증을 시켜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교회에도 데리고 와서 담임교역자와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장로와 구역장이나 포대들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만남의 약속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을 읽을 것과 소책자를 주고 함께 기도한 후 헤어진다.

라. 세 번째 모임

새신자가 처음으로 리더의 전도활동에 참가하였고 또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느낌을 묻고 나서 가능한 한 토요일 전도활동에 함께 갈 것과 일요일 교회 출석을 재 확인해두어야 한다. 오늘 모임부터는 새신자에게 모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것을 말하고 리더와 손을 잡고 기도를 한다. 교재를 주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쉽게 대답할 것을 중용한다. 리더는 그의 대답이 정확치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교정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전한다. 리더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갖고있는 아주 의미 있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봅시다.”라고 말한다. 소그룹 모임에 참석시키고 견학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그룹 멤버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움을 느끼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는 일대일 모임이 좋다고 할 때는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다음 다음기회로 넘기고 계속 둘이서 만나는 것이 좋다. 물론 소그룹에 가서 좋은 느낌을 얻었으면 일대일 모임을 그만하고 소그룹에 참여시키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마친다.

마. 네 번째 모임

아직도 새신자가 소그룹에 가기를 원치 않고 일대일 모임을 고집하면 계속하여 여섯 번째 모임까지 끌고 가면서 가끔씩 소그룹모임의 중요성을 말하고 유도해야 한다. 지난 주 토요일에 전도활동에 대한 느낌과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대하여 몇 마디 얘기를 나눈 다음 둘이서 차례로 기도하고 시작한다. “오늘은 찬송가를 함께 불러봅시다.”라고 말하고 가급적 쉬운 찬송을 함께 불러본다. 그리고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지금부터는 새신자가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찾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도 곧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이 찾고 답하고 기록하게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며 리더는 도우미로서 진행해야 한다. 이때 리더는 어머니같이 새신자를 돕는 태도가 요청된다. 다시 한번 소그룹 모임에 대하여 말하고 함께 갈 것을 권유한다. 만일 가겠다고 하면 “정말 잘 생각했다.”고 말한다. 소그룹 멤버들에게 돌아가서 일일이 알리고 기도로 맞아드릴 준비를 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진행되었으면 토요일 전도활동과 일요일 교회 출석하는 일과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양육이 시작된 셈이 된다. 만나는 날짜를 소그룹 모임과 일치하게 하고 기도하고 헤어진다.

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모임

위와 같이 언제나 요한복음 읽기와 전도활동과 교회출석에 대하여 몇 가지를 나누어 다음 둘이서 기도하고 교재를 갖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에 가입하기를 지금까지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면 교회생활과 토요 전도활동 그리고 일대일 모임만은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생활을 예배 드리는 일에만 한정하지 말고 새신자에게 맞는 또래의 부서에 가입시켜서 그곳에서 함께 활동하도록 돕는다. 언제나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 소그룹 모임에서 하는 일 순서

이 과정은 90 분~120 분 정도여야 한다.

- (1) 상호간 친목교제를 짧은 시간에 갖는다.
- (2) 찬송가 기도를 포함하여 예배를 드린다.
- (3)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눈다.
- (4) 리더의 교정과 종합결론을 듣게 한다.
- (5) 간단한 과제 즉 성경을 읽어오는 일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등을 준다.
- (6) 함께 찬송하고 기도한다.
- (7) 음식이나 다과가 있으면 더욱 좋다.
- (8) 기초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준다 (전도훈련 받기, 성경 읽기, 전도 실천하기, 경건의 시간 갖기 등).

5. 교회의 지체화 (접붙이기)

소그룹을 모판이라고 한다면 전체교회는 넓은 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적합하고 가정은 작은 그룹이 모이기에 적합하다.⁹⁸⁾ 소그룹은 마치 가정과 같아서 깊고 두터운 이해와 만남을 갖기에 적합하므로 매우 응집력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에 좋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전체 교회 안에서 핵이요 누룩 같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 질 수 있다. 이런 좋은 자원들을 소그룹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면 전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색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단점을 미리 막고 교회의 모든 구조와 기관이 생동감 있게 하려면 소그룹 안에서 훈련된 자원을 일정한 훈련프로그램이 끝나기 전부터 전체 교회 안의 일부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영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가 소그룹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전체 교회 안에서 적용시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

98) Anne Ortlundo, 소그룹 지도를 통한 신앙훈련, 50.

로서 소그룹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역자를 도와 중간간부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여 지도자 분담사역이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그룹에서 자라난 사람이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예배인도를 하기도 하고 청장년부에서 전도활동의 시범 자나 강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구조와 기관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앞장서서 폭발운동에 나서게 할 수가 있다.

담임교역자가 소그룹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담임교역자는 전체 교회의 구조적 필요와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담임교역자는 전체 교회 안에서 적절한 자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담임교역자는 소그룹의 자원을 통하여 자신의 목회영역을 확대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담임교역자는 언젠가는 전체교회가 전투요원처럼 간부화할 것을 바라야 한다. 담임교역자는 소그룹의 자원들의 받은 은사와 소원 부서를 파악하여야 한다. 리더는 그룹활동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전체교회를 위하여 그룹이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소그룹 자원은 전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야든지 전문화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 자원이 있는 곳에는 어떤 신자라도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는 소그룹 자원을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로 인정하고 기도와 재정으로 도와야 한다.

제 3 절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전도와 양육 그리고 접붙이기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의 임무가 아니고 모든 신자는 전도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소그룹 안에서 훈련되는 사람들은 특수전투요원처럼 밀도 있는 훈련을 받게 되므로 그들이 일정한 수준의 훈련을 마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전도와 봉사활동 그리고 구역 안에서와 또래의 기관 안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도 활동의 경우 몇 가지의 전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게 한다. 전도의 내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겠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화하여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양육과 접붙이기에 있어서도 모임을 만들기 전에 전도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만남 약속의 방법이나 만나서 어떻게 진행하며 난제는 어떻게 풀어 가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새 신자를 그 안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하여 교회 내에서 그에게 맞는 활동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목회자의 수고를 반감하고 분담사역을 하게 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생동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교회 안의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면 전 교인을 영적 군사화 할 수 있게 된다. 소그룹 활동이야말로 교회가 힘을 얻어 재생산하며 목회 영역을 배로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인 것이다.

제 5 장

소그룹 활동의 프로그램과 사례들

제 1 절 소그룹 전도

소그룹 단위의 전도는 전도대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1 차 집단 초청전도, 2 차 집단 초청전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 차 집단과 2 차 집단의 의의를 알아보고 각 집단별 초청전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의 쿠올리 (C. H. Cooley)에 의하면, 사회집단은 그 구성 성격에 따라서 1 차 집단 (primary group)과 2 차 집단 (secondary group)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⁹⁾ 1 차 집단은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결합되어 구성원들이 전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집단은 개인의 인성 형성에 근원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일차 집단이라 하였다. 가족과 친구집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차 집단은 구성원간의 간접적인 접촉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결합되어, 구성원들이 부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회사, 취미클럽, 각종 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집단은 사회화의 효과도 2 차적이며, 1 차적 집단 보다 나중에 발달된 인위적이라는 점 때문에 2 차 집단이라 한다.

1.1 차 집단 초청 전도

초청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 등을 활용하여 전도계획을 세우고 1 차 집단인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초청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1 차 집단 전도준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초청범위는 1 차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가족그룹과 또래집단을 혼합하여 초청하지 않고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다. 초청전도를 위한 기도준비와 관련 프로그램을 초청대상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다. 장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한 곳으로

⁹⁹⁾ C. H. Cooley, Social Proces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6), 28.

한다. 초청전도에서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초청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명사이면 더욱 좋다. 행사와 식사준비 등에서 빈틈없이 하여 초청 받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한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감사와 축하기도, 짧은 간증, 찬송 등으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간다. 사회자는 모임에 대한 감사인사와 더불어 응답 카드를 써서 제출하게 한다. 모임이 종료하면 초청자는 파티에 다녀간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써낸 응답카드를 분류하되, 신자와 비신자, 비신자중에서 관심·무관심·반대·호감 등으로 분류한다. 호감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을 별도로 분류관리하면서 개인전도 접촉을 시도한다.

2.2차 집단 초청 전도 방법

가. 무료 진료활동을 통한 전도

소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원 중 의사(한방, 양방)가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료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심지나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시설(병, 의원, 약국, 보건소 등)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농어촌지역이나 낙도 지역들처럼 경제적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 진료 활동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은 노인계층과 소외된 지역전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료활동은 진료 가능한 기간과 진료장소, 진료대상, 소요예산, 참가 가능한 의료 지원 규모, 관련행정기관과의 협조, 인근 의료기관의 협조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사전준비를 통해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그룹 회원들이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도활동은 개인적인 만남과 진료지역의 교회전도집회 등을 통해 진행하고 인근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도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의료 팀과 전도 팀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도 팀은 사전기도준비와 대상자의 특성에 맞도록 전도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책임을 맡는다.

의료진과 그룹 회원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각기 자기 위치에서 질서 있는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진료활동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진행하되 약식으로 하며, 기본치료행위와 검진, 투약 중심으로 실시한다. 진료가 끝나면 밤에 있는 건강강좌 집회에 나올 것을 권유한다. 진료가 시행되는 동안 훈련된 전도요원들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나 진료 후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해 준다. 또한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돌보아 주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전도용 소책자나 전도지와 건강관련 소책자 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건강강좌 전도 집회의 진행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좋으며 밤 시간에 의료진들의 강의를 사진, 슬라이드, OHP, 영화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진행한다. 찬양리더는 다 함께 짧은 찬양과 특별찬송을 인도하고 전도는 소그룹 리더가 5분 정도로 하고 결신의 시간을 준 뒤 함께 기도한다. 안내 요원들은 이 때 응답카드를 적게 하고 건강강좌 시간 등 공지사항을 광고하고 마친다. 응답카드 등을 활용하여 참석자들을 분석한 뒤 그룹회원이 직접 만날 수 있거나 그룹회원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만나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던 사람이나 계속 의료 팀과 만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만나서 상담을 통해 교회로 인도한다.

나. 음악회 등 문화활동을 통한 전도

소그룹 회원 중 음악이나 미술, 공예 등을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으며 없을지라도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문화활동은 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통로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익하며 그 중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회는 전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음악회 등을 통해 들어온 수입금은 장애인 등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2 절 소그룹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

소그룹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하여 그룹을 세우거나 키워나가기도 하지만, 그룹 단위로 그룹회원들이 각기 임무를 맡아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여서 전도를 하고 거두어들이는 활동으로서 본질에서는 구체적인 만남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모임준비

가. 날짜 선정

소그룹 단위전도를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시행일 2-3 개월 정도 이전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단위전도의 내용에 따라서 초청을 받는 사람의 휴가기간이나 주말 등을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는 계절이나 우기, 농번기 등을 피하여 택해야 한다. 특히, 준비하는 그룹 회원들이 공통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계절이나 날짜가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교회들의 공통적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장소 설정

교통이 편리하고 찾기가 쉬운 곳(건물, 야외)으로 하되 소음이 많은 곳은 피하여야 한다.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강당이나 야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 장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시설, 냉난방 시설, 보충 전기시설, 등을 잘 갖추어진 장소가 필요며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면 더욱 좋다. 실내 장소일 경우 천정이 낮은 것은 피하여야 한다.

다. 홍보 활동

초청장, 포스터,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 교회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되, 전도대상의 특성에 맞게 홍보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회 신자들이 대상자를 몇 명씩 직접 데리고올 수도 있으며 존경 받는 인사나 교회 안의 특정 직업인들 (연예인 교육자 등)을 내세워서 홍보활동을 펼 수도 있다.

라. 연사 선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오래지 않은 회심을 한 장년 평신도이어야 하며 스피치의 방법은 자신의 삶과 간증이 섞인 분명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수적으로 연사의 경력·배경·인성·지명도·참신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기도준비

모임규모에 따라 준비기간을 달리하여야 하며 그룹 회원들만 기도하다가 모임이 가까워지면 자원봉사자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도내용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그룹회원을 중심으로 가능한 전체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제목이 전교

회 신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룹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철야와 금식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

2. 대상자(지) 선정방법

전도방법과 주요 목적에 따라 대상자와 대상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룹전체회의를 통해 전도방법과 주요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룹 회원들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목적과 전도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여 상호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모임이 봉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도를 주목적으로 할 때는 교회 인근 주민들을 우선적 전도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임의 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성격의 모임이든 초청대상자는 신자와 비신자를 50 퍼센트씩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3. 시행

모임준비와 대상자 및 장소 선정이 끝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행하기에 앞서 리허설을 통해 실제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사는 정시에 시작하여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되 지나친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수가 발생되면 전체순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전체 청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고시간은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 하며 그룹리더나 담임목사의 인사를 통해 감사를 표한다. 종교 여론조사나 응답카드 등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모임이 끝나고 나갈 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본 행사가 끝나면 가급적 지체하지 않고 리셉션을 바로 시작하며 30 분에서 40 분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한 청중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출연진과 준비 위원들에게 감사하는 일을 하여야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남게 하여서 대화시간을 갖으며 복음을 증거 할 수도 있다.

4. 모임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일

가. 장소의 시설과 환경을 검소하게 하되 계절에 맞는 장식을 해야 하며 큰방에 사람이 모자라는 것보다 작은 방에 넘치는 것이 좋다.

나. 좌석 배치가 일목요연하여 찾기가 쉬워야 하고 안내원들은 지나치게 화사하거나 튀는 것을 금해야 한다.

- 다.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한다.
- 라. 연사와 간증자는 목사가 아니어도 되며, 되도록 말은 짧고 간명하게 하도록 하라.
- 마.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떼어놓아 앉게 하라.
- 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별도의 시설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사. 응답 카드는 미리 탁자 위에 비치하도록 한다.
- 아. 시설에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음향이나 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자. 사회자가 저속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
- 차. 연사는 상투적인 종교언어나 교과의 이야기를 피하고 논쟁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피한다.

5. 후속조치

가. 제1차 조치

모임 후, 초대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감사 편지나 신문, 회보에 감사인사를 게재한다. 초대되었던 사람들의 반응 분류 중 반대는 제외하고 관심과 긍정을 표한 사람들에게 대한 재 접촉을 준비한다. 방문해야 할 사람이 많으면 다른 그룹이나 전체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1차 조치에서 주의할 것은 재 접촉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재 접촉자 명단을 가지고 팀별로 정하고 기도한다.

나. 제2차 조치

2차 조치는 팀별로 방문하여 만나는 방법으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인 하루 전에 전화로 확인한다. 방문할 때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방문 팀의 규모는 4-5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방문시 간단한 선물이나 꽃을 통해 만남을 부드럽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제3차 조치

방문 시 팀 리더는 그 집안상황을 신속히 관찰하고 출입구 쪽을 향하여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리더는 자신을 소개하고 함께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지난번 모임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고 그들의 소감을 듣는다. 들어가는 말은 짧게 하고 복음을 증거 한다. 만일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교회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하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야 한다. 영접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여 준다. 만약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돌아오는 주일 하루 전날에 한번 더 짧게 전화로 확인하여 약속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라. 교회 참석시 해야 할 일

먼저 같이 방문했던 회원들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영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되도록 앞자리에 앉게 안내하고 그룹 회원들이 좌우 사방으로 함께 앉아 참석자의 예배를 돕는다. 예배를 마치면 그룹 회원들이 함께 목사나 장로들에게 기쁘게 소개한 후 가능하면 새신자반이나 목사님과 만남을 주선한다.

점심은 그룹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며 몇 가지 교회생활에 대한 지침이나 모임 등을 식사자리에서 안내하며 식사시간에 한두 사람 정도 짧은 간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주중에 그룹리더나 그룹회원 중 하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런 후 리더가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을 안내한다.

마. 주간 미팅

만남의 시간과 만남의 장소는 그룹리더가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고 권한다. 주중의 첫 번째 만남은 간단한 스낵이나 차를 함께 마시면서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모임을 마칠 수 있게 한다. 리더는 교제하면서 목사님이나 구역장과 심방여부에 대해 묻고 날짜를 정해 둔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주중에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소그룹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제 3 절 소그룹을 통한 교회의 활성화: 광성교회를 중심으로

1. 광천교회의 역사

광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크게 창립기, 정초기, 성장기, 발전기, 부흥기 5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⁰⁰⁾ 여기서는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창립기 (1971-1972)로서 광천교회는 경기노회에서 정식으로 장성교회로부터 교회분립을 인허 받아 1972년 3월 12일 김명호 장로 외 96명이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써 설립된 교회이다. 교회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41의 28호 소재 건물 2층의 40평 남짓한 곳에 위치하였

100) 광천교회 15년사 편찬위원회, 광천교회 15년사 (서울: 예손그리너, 1987).

고 당시 전세금은 80 만원이었다고 한다.

둘째는 정초기 (1972-1974)로서 박병진 목사가 초대 당회장으로 부임하고 교회조직이 정비되어 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일학교, 성가대, 당회 및 제직회, 청년 면려회 등 각 기관을 창립하였고, 제 1 대 장로 및 권사 등 교회의 임직을 통해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성장기 (1975-1979)로서 올바른 신앙 토대를 정립하고자 힘쓰면서 성전을 신축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총회 분리와 함께 박병진 목사가 사임하는 때까지의 시기이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유치부·중고등부·대학부 등을 창립하는 등 교회기관을 확장하고, 2~4 대 임직자들을 세웠다. 이 때 주목할 만한 것은 1979 년 3 월부터 계획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넷째는 발전기 (1980-1985)로서 윤도영 목사가 제 2 대 당회장으로 부임하여 재임하는 동안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성전을 증축하여 교회가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의 교회는 교회 10 주년을 맞이할 때에 대성전 건축, 부설기관 설치, 해외선교사 파견이라는 3 가지 비전을 가지고 매진하게 된다. 총동원 전도운동, 전도훈련학교, 노방전도, 축호전도, 전도부흥회 등 전도운동과 베델성서대학, 조찬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성경공부, 강해 설교 등 청년운동을 통해 젊은 인재 양성을 통해 광천 교회의 영적 기반과 성숙의 기틀을 이룩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는 부흥기 (1986-1990)로서 제 3 대 당회장으로 장정일 목사가 부임하여 신앙과 인격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 가를 보여주고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3 대 목회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대예배가 3 부로 나뉘어지고 광천성경연구원이 개원되고 지교회 설립 및 케냐에 선교사 파송 등을 통해 광천교회의 비전을 이룩하여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광천교회의 새생명 훈련 (New Life Training Center)

광천교회의 성숙기는 이문희 목사가 제 4 대 당회장으로 위임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광천교회는 광천성경연구원의 책별·인물별 과정 개원, 제 9 차에 걸친 요단작전, 교육관 건립 등 여러 가지 교회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 준비하여 둔화된 교회의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 중에 둔화된 교회성장의 시발점이 되는 새생명 훈련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교회의 괄목할 만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가. 새생명 훈련의 개요

새생명 훈련 (New Life Training Center; 이하 NLTC)은 국제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다. 이는 2000 년대에 예상되는 65 억의 인구에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핵심 전략이다. 이 훈련은 일정한 목표지역을 복음화 하기 위해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전도, 제자화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계층, 민족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 하려는 운동이다. 또한 세계에서 권위 있는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인정된 전도 및 제자화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교회 성장을 돕고 모든 계층에 전도, 양육, 및 제자화를 전수 할 수 있는 훈련간사자원을 개발하여 개인의 영적 성장과 전도 및 양육의 사역 기술을 체득하게 하는 데 있다.

나. 교회 내에서 NLTC 진행과정

광천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없고 오래된 단독주택군들로 구성된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회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문제상황에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도를 통해 양적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여 새생명 훈련을 통한 새신자 전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NLTC 는 1996 년 3 월에 40 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8 차 과정을 수료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었고 둘째는, 사영리 정도의 소책자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 성장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 견해로 나타났었다. 또한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하므로 직분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담임목사 (이문희 목사)가 직접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NLTC 를 시작한 후 매년 100 명 이상의 등록교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시작 전에 가졌던 부정적 견해를 일소할 뿐 아니라 광천교회같이 교회가 처한 지역상황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장방법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광천교회는 새생명 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계속 평신도를 훈련시켜 나감으로써 평신도 사역자와 선교사를 양성하여 파송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새생명 훈련을 위해 기도·재정·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재정은 매년 2,000 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그 외에 부대비용을 일체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 훈련과정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계속하여 재정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교회전체가 이 일에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서 계속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양적인 증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다. 새생명 훈련의 내용

새생명 훈련은 개인경건 훈련, 전도훈련, 양육훈련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인 경건 훈련은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갖는 방법과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과 성령 충만한 삶, 성구암송훈련 등을 익히게 된다.

둘째는, 전도훈련으로 개인전도, 그룹전도, 대중전도 등을 교육하고 숙달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한다. 물론 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사영리, 성령소책자, 사랑하는 형에게, 종교여론 조사서, 응답카드 등이다.

셋째는, 양육훈련으로서 기초양육과정, 그룹별 모임훈련, 지도자 훈련 등이 있다.

라. 새생명 훈련의 방법

새생명 훈련은 한 명의 훈련간사와 훈련받는 교인들이 한 팀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함께 훈련하며 이론교육 (40 퍼센트의 비중)은 강의, 토의, 시범,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현장 실천사역 (40 퍼센트)은 사역목표지역에서 전도와 양육을 경험하게 한다. 점검 (20 퍼센트)은 경건의 생활과 이론 및 실천사역 기술을 점검한다. 새생명 훈련을 진행하면서 그룹모임과 퇴수회 등으로 제자화 훈련의 비전을 심어준다.

(1) 새생명 기초훈련의 일정

먼저 주간별 일정으로서 1 주차에는 초급 전도훈련, 여호수아 기도회, 사역목표 지역선정 및 파악, 개원예배, 안드레 카드작성, 팀배정 등을 실시하고, 2-3 주차에는 안드레 카드를 통한 관계전도 시작 및 개인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회심자에 대한 개인 양육을 시작하게 한다. 4-6 주차에는 관계전도, 개인양육을 지속하고, 7-8 주차에는 훈련생 간증 및 사역평가회, 종합시험, 사정회, 사랑과 감사의 시간, 운영 보고회, 수료예배 순으로 해서 기초훈련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새생명 훈련의 시간표 모델은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1> NLTC 의 시간표 모델

시 간		프 로 그 램	
오전	10:00-10:20	찬양 및 기도	
	10:20-11:30	강 의	순모임 점검
	11:40-12:40		
오후	12:40-1:40	중 식	
	1:40-2:00	찬양 및 기도	
	2:00-4:30	실천사역	

(2) 새생명 훈련의 운영지침

(가) 훈련생 선발기준

- 1) 지원자로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세례교인 이상
- 2) 협력사역에 지장이 없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사람
- 3)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 4) 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가정이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끝까지 마치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

(나) 훈련생 수료기준

- 1) 결석 3 일 지각 6 회 초과 시에는 수료할 수 없다.
(지각 3 회 시 1 일 결석으로 간주함)
- 2) 개인전도 목표 20 명 이하일 경우 수료할 수 없다.
- 3) 전체 성적이 60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4) 훈련원이 요구하는 지침과 지시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어야 한다.
- 5) 지속적인 사역확산 가능성을 가지며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6) 기타 훈련원에서 제시한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새생명 훈련의 단계

NLTC 의 훈련단계는 <표 5-2>와 같이 크게 3 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별 내용과 참여자

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2> 새생명 훈련의 단계

구분	새생명 훈련 I	새생명 훈련 II	새생명 훈련 III
내용	초급전도훈련 초급양육훈련 중급전도훈련 중급양육훈련 보충강의 개인경건훈련 팀별 전도훈련	고급 제자화 훈련 제자화 순모임 인도법 초중급 훈련의 중점정리 10 단계 교재 순모임 신앙개념 쉼어링 훈련간사의 역할 영적승법번식의 정의와 철	훈련원의 철학과 조직 10 단계교재와 제자화 순모임 훈련간사훈련 기본세미나 및 강의 인도하기
자격	훈련원장의 추천세례교인 훈련을 사모하는 사람 면접합격자	새생명 훈련 I 수료자 계속적인 전도 열매자	새생명 훈련 II 수료자 양육 열매있는 자 예비훈련간사 훈련원장의 추천자

(4) 새생명 훈련의 여호수아 기도회

근거말씀은 여호수아서 6 장 1 절에서 21 절로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믿음으로 영적 장벽을 무너뜨리며 사역지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 나간다. 여호수아 기도회의 목적은 사역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먼저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눈 후 합심기도를 한다. 그리고 사역 목표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사역하는 곳을 순회하며 주위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찬양을 하고 구호를 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지점에서는 찬양과 합심기도를 한다. 기도회를 마친 후 간증을 나누고 전략을 검토한다.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소그룹 안에서 이뤄지는 몇 가지의 개인 혹은 팀으로 실행하는 전도와 양육의 원리와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그룹내의 개인으로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실습이 필요하였고 양육에 있어서도 실제로 드러난 전도의 열매를 직접 가르치고 함께 하는 삶을 배워야 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소그룹 안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팀 사역을 이뤄가는 데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지면의 한계상 소수의 모임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팀으로 전도활동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첫째, 소그룹 내의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헌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그룹들은 회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한두 사람만 반대하거나 무관심하여도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팀으로 하는 전도활동은 언제나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 협동과 헌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소그룹으로 전도활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헌신된 마음만 있고 실제로 재정이 충당되지 못한다면 소그룹 전도활동은 곤란하게 된다. 개인들이 드리는 헌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기도와 함께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셋째, 전도활동 방법이다. 그룹 안에 행정능력과 조직력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으나 리더는 언제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서 이런 부분까지도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조직은 그룹 안 뿐만 아니라 그룹 밖에서도 행정이나 조직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한다. 물론 항상 진행하는 방법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야 한다.

넷째, 전도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메시지와 그것을 전하는 연사이다 연사의 인격도 중요하고 그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의 인류 전체의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메시아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청중들 속에 깊이 각인 될 수 있는 연사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전도활동을 준비하고 시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리더를 중심으로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상호 보완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자동차 부품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 같이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지 못하고 기도가 부족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소그룹 내의 내분이나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기 부여이다. 소그룹에서 이뤄지는 전도활동에는 구성원들에게 행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공유되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리

더는 구성원들이 절대적인 헌신이 있을 때만 전도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구성원들을 섬김으로써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그룹 안에서 함께 하는 전도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이 교회 안에서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교인에게도 신앙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이 전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가운데서도 소그룹 활동에 역점을 두고 기도와 재정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교회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통한 성경공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숫자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적 증가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외형적 성장으로 인해 교회는 대규모이지만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적으로 충실하게 가르치지 못하였고 외적으로도 실천이 부족하였던 것을 아울러 발견하게 되었다. 소그룹 활동이야말로 메마른 교회 안에서 생수와 같고 병들고 연약한 교회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소그룹 활동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대화하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힘을 모으는 영적 집합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에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만의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나누어 공유하게 될 때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그룹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간에 상호작용과 유기체적 조직으로 삶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혈연집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교회 성장을 위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기 맡은 역할을 서로 확인하고 감당해나가기도 하고 개인별로는 구성원 상호간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분야에서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며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가는 것이다. 소그룹은 상호보완성과 융통성과 역동성 그리고 유기체적 통합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그들의 활동이 다른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복음전도에 매체가 되어 교회성장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신자가 둘 이상 모이게 되면 사실상 소그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소그룹 구성원수는 대체로 6-12 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그룹은 12 명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룹모임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만나

서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며 기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대체로 12 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많을 때는 그룹을 두 개로 분산하여 리더를 세워서 새롭게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각자의 자기훈련과 공동생활의 훈련장으로서 소그룹에서 훈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훗날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보는 것이다 (눅 6: 13-16; 마 4: 18-22).

소그룹 활동의 성경적 근거로는 구약에서는 가정이라는 제도가 곧 그룹화 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노아의 가정은 소그룹에 해당되는 적절한 수였던 것이다 (창 7:7, 13; 벧후 2:5; 벧전 3: 20).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초기에는 개인 혹은 두세 사람씩 만나서 전도하고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으나 그 중에서 12 명을 택하시고 그들로 그룹을 만드셔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 즉 120 여명에서 3,000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대중적으로 모이 기도 하였고 가정에서 소수의 그룹으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와 기도 그리고 봉사 등을 했던 것이다 (행 2:42-46).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 지역에서도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롬 16: 3-5; 문 2; 행 20:20).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소그룹 활동의 맥을 이어 교회사 속에서 많은 소그룹 활동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소그룹 활동은 사회의 일반그룹과는 달리 분명한 목표와 목적 아래에서 소수의 신자들이 모여 서로를 돌아보며 도우며 함께 자라게 하는 집합역학의 활동인 것이다. 여기에 구성원은 목표와 목표를 같이해야 하며 공동체로서의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상호간에 세워주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는 개인의 경건훈련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받은 은사를 개발하여 교회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건 훈련 외에도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와 봉사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복훈련과 실습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교회는 반드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수적성장 지향은 옷자람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소수의 질적 성장 지향은 왜소하고 폐쇄성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수레의 두 바퀴 같아서 모두가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집단이라면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나 사회를 향한 봉사와 구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공동체는 공동봉사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보다 더 역동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서 전체를 이루어 가는 상호보완적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 전체를 몸으로 본다면 소그룹은 직접

세상과 접촉하는 지체요 활동체임이 틀림없다. 이 소그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체의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전체 교회가 자라나며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양적 확대 중심의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 선교 방법이나 설교의 내용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기복주의의 설교나 지상의 세속적 행복만을 강조하는 기만적 설교를 함으로서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활동의 구성원들은 그룹자체가 교회의 전진기로서 서로를 섬기고 공통의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 전도하고 구제와 봉사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소그룹을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 만이 모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다.

소그룹을 구성하는 데는 같은 연배나 비슷한 직업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전체가 이러한 활동에 동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지라도 모범적인 소수의 그룹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게 함으로서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전체 교회가 동의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일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앞장서야 한다. 교회성장의 일환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목회자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때에 전체교회가 자극을 받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가 앞장서게 될 때 전체교회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소그룹을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는 기도 그룹을 만들어 그들을 지원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점차적으로 그들도 또한 소그룹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목회자는 소그룹 구성의 산파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몇 가지의 그룹형태가 있지만 일관된 조직보다는 신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 즉 사람의 수효가 다름으로 조정과 보완이 언제나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소그룹의 리더는 그룹 내에서 아비요 목자요 기도후원자요 섬기는 종으로서 그룹 회원들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을 알아내고 돕는 사람이다. 리더는 그룹 내에서 그룹이 해야 될 일과 가는 길을 제시하고 앞장 서서 본을 보이며 따라오게 하는 지도자요 개척자인 것이다. 이러한 리더가 되려면 확실한 믿음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도전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훈련된 리더가 되려면 기도 훈련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전도에 능한 자로서 자기 자신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관리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결국 소그룹을 만들 때는 리더가 있어야 하고 같은 목표와 목적을 이해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좋은 그룹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소그룹 활동의 운영은 대부분 전도와 양육의 두 가지 요소를 위하여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 소그룹 활동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삶의 무목적과 좌절과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예수께서 가장 원하셨던 일인 것이다 (마 9:37-38). 전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 (막 16:15, 마 28:18-20) 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대한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도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선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전도는 신자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이 대전제인 것이다. 신자는 자신이 믿고 얻은 선물인 영생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 그리고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찾아가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 한편 전도는 성령과 동행하여서 성령이 전도를 주도하도록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행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의 방법은 대중전도와 개인전도 그리고 문서전도와 마스크 전도로 대별할 수 있다. 개인전도의 도구는 여러 가지 전도자료 즉 전도지, 소책자와 복음소식지 등 많은 것이 있지만 특히 사영리 소책자는 전도하기에 아주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수억 부가 인쇄되어 쓰여졌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도를 한 후 회심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만나서 가르치고 도우며 보살피 주어야 한다. 양육을 미루지 않고 시작하여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점점 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교정하고 실천위주의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교회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재생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양육과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라게 하되 다른 신자들과 교제를 갖게 하고 실제 복음전도에 참여케 함으로서 더욱 잘 자라게 될 것이다.

리더는 그를 자주 만나서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룹활동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그룹 활동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소그룹의 형태와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또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전도와 양육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제부터는 소그룹 활동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소그룹 안에서 멤버들이 각기 받은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팀으로 전도활동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며 교회의 인근 지역이나 무의탁 노인촌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는지와 실행 후 전도의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는 팀 모임(그룹)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전체와 함께 하는 크고 작은 전도초청집회, 의료봉사활동, 음악축제 초청집회, 영화상영 초청전도 집회 등은 교회성장을 위하여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교회 안의 다른 신자들에게도 큰 도전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됨을 알았다.

교회성장의 활발한 원동력은 소그룹의 멤버들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전도와 구체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차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광천교회의 실례를 들어 몇 가지의 교회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새생명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이 전문화된 새생명 훈련 프로그램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교회 성장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회는 전적으로 소그룹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다. 교회의 기도와 재정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고 또한 담임교역자 이문희 목사가 맨 앞에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광천교회는 지속적으로 소그룹 단위의 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도하게 될 것이고 교회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활동이 얼마나 많은 응집력이 있으며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회성장의 가능성은 너무나 크지만 이러한 활동을 교회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구체화된 소그룹 활동의 연구와 더불어 더 많은 교회가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강문석. 선교신학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3.
- 광천교회 편찬위원회. 광천교회 15 년사. 서울: 예손그리너, 1987.
- 김광식. 초신자육성을 위한 14 단계. 서울: 크리스찬비전사, 1975.
- 김명혁 편.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엠마오, 1982.
- 김성진. 효과적인 전도. 서울: 복음문화사, 1987.
- 김준곤. 순론노트. 서울: 순출판사, 1998.
- 박종순. 교회성장과 성경공부. 서울: 해원출판사, 1984.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4.
- 윤종하. 그룹성경공부 지도요령. 서울: 성서유니온, 1988.
- 이상규. 한국교회의 역사적 흐름. 서울: 총회출판국, 1998.
- 이연길, 최훈진.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이연길. 이야기식 성경공부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정석현. 교회성장과 평신도의 역할. 대구: 보문출판사, 1984.
- CCC. 순모임 이렇게 한다. 서울: 순출판사, 1977.
- DFC. 가지론. 서울: DFC, 1998.

2. 번역 서적

- Ann, Charles et al. 교회소그룹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 노재관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 Barkley, Oliver.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IVP 역. 6 판. 서울: IVP, 1989.
- Bavinck, J. H.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7 판.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Baxter, Richard. 참목자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4.
- Bounds, E. M. 기도의 능력. 이정운 역. 4 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2.
- Bright, Bill. 4 영리. 한국대학생선교회 역. 서울: 순출판사, 1999.
- Callahan, Kennon L. 성숙한 교회의 열두가지 열쇠. 권오서 역. 서울: 생명의샘, 1995.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종흠 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 Cemiskey, Joel. 셀그룹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Cemiskey, Joel. 지투엘브 이야기.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Chanda Pilla, P. T. 예수님의 제자훈련. 신재구 역. 2 판. 서울: IVP, 1985.
- Coleman, Robert. 예수님의 제자도. 이상길 역. 서울: 크리스찬 비전하우스, 1993.
- Coleman, Robert.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3 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 Donahue, Bill.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 송영원 역. 서울: 디모데, 1999.
- Eims, Leroy. 제자들의 사역.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84.
- Adams, Leroy.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네비게이토역. 2 판.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81.
- Glasser, Athur F., and Donald McGravran. 현대선교신학. 고환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Graham, Billy. 성령. 주인정 역. 서울: 보이스사, 1993.
- Green, Michael.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2 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Hanks, Bille, Jr., and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 Henrichse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네비게이토 역. 3 판. 서울: 네비게이토, 1981.
- Hill, Leonard Raven.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 이의원 역. 3 판. 서울: 나침반사, 1989.
-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7 판. 서울: 요단, 1999.
- _____. 목회자가 제자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5 판. 서울: 요단, 1999.
- Icenogle, Gareth Weldon.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 Jacks, Bob, and Betty Jacks. 소그룹을 통한 효과적 전도. 네비게이토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9.
- Kennedy, James. 현대전도. 이동원 역. 5 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6.
- McBride, Neal F. 성공적인 소그룹만들기. 네비게이토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7.
- _____. 소그룹인도법.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9.
- Middleton, J. Richard, and Brian J. Walsh.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역. 6 판. 서울: IVP, 1989.
- Moltmann, Jürgen.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의 역. 8 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 Moody, D. L. 생명의 말씀사역, 승리하는 기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Moore, Waylon B.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9쇄. 서울: 요단, 1994.
- Neighbour, Ralph W., Jr. 셀목회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9.

- Nicholas, Ron, et al. eds.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91.
- Ortis, Juan Carlos. 제자입니까?. 김성영 역. 서울: 두란노, 1999.
- Ortlundo, Anne. 소그룹지도를 통한 신앙훈련. 보이스사역. 서울: 네비게이토, 1986.
- Pink, A. W. 영적인 연합과 친교. 지상우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4.
- Reid, Clyde. 성숙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운동.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_____.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쿠파, 1996.
- Smith, David. 금식기도. 오성용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77.
- Stockstill, Larry. 셀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0.
- Stott, John R. W. 현대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4 판.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IVF Staff Team. 소그룹 리더핸드북. 정옥배 역. 서울: IVF, 1984.
- Van Engen,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Wagner, Peter.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요한 역. 인천: 성서연구사, 1986.
- _____.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_____.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_____.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인천: 나눔터, 1996.
- _____. 기도하는 교회. 홍원팔 역. 서울: 도서출판 알뜰기획, 1996.
- _____.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_____. 불을 질러라.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6.
- _____. 선교현황과 영적전쟁. 정운교 역. 인천: 나눔터, 1994.
- _____.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인천: 임마누엘, 1992.
- _____. 성령의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 _____. 성서적 교회성장. 서정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_____. 세계를 밝혀라.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7.
- _____.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인천: 나눔터, 1994.
- _____. 효과적인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Watson, David.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_____.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9.
- Wiebe, Michael. 소그룹을 인도하려면. IVF 역. 서울: IVP, 1981.
- Wilson, Carl. 목회와 제자양성. 권영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 Wimber, John, & Kevin Springer. 능력치유. 이재범 역. 8 판. 서울: 나만, 1994.

Wimber, John. 능력전도. 이재범 역. 10 판. 서울: 나단, 1995.

3. 외국 서적

Barker, Steve, and Judy Johnson.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Downers Grove: IVP, 1984.

Bryon, Deshier G. The Power of the Personal Group. Nashville: Tidings Press, 1960.

Cooley, C. H. Social Process. Carba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6.

Hunt & Gladys. It's Alive. Wheaton: Harold Shaw Publishers, 1967.

Kenneth. Dynamic Disciple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Navigator. Lead-out. Colorado Springs: Navpress, 1974.

Nyquist, James. Leading Bible Discussions. Downers Grove: IVP, 1967.

Stafford, K. Handbook for Helping Others. Oldtapan: Fleming H Revell, 1986.

Switzer, J. The Minister as Crisis Counselor. Nashville: Abingdon, 1986.

Vita of
Jeong Hee Yoo

Present Position:

K.C.C.C.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Staff Member

Personal Data:

Birthdate: Dec. 6, 1944

Marital Status: Married to Moon Kang Lee, with four children

Home Address: 425 S. Newhampshire Ave. #310 L.A. CA 90020

Phones: 213-389-0619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1986

Education:

B. A. Chun Buk National University

M. Div.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ersonal Experience:

1972- present K.C.C.C.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Staff

1991-1993 Senior Pastor , Youngshin Presbyterian Church

1993-1996 Assistant Pastor, L. A.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

1997-2000 Senior Pastor, L.A. Somang Presbyterian Church